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15.78	↓ 코스닥	717.89
	(-6.12)		(-5.63)
↑ 금리 (미국 9년)	2.561	↑ 환율 (원·달러)	1472.00
	(+0.061)		(+11.50)

사립대 등록금
졸업생 움직임 속
국립대는 동결
03



지난해 4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오토쇼에서 관람객들이 비야디(BYD) 부스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소재·전자·車까지 '차이나 공습' 경보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저가의 소비재 상품을 넘어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로봇청소기와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당장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향후 국내 산업 전반의 제조·소비 생태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샤오미 등 中 기업 국내 공략 가속
로보락, 百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BYD·샤오핑, 전기차 본격 진출
제조 등 국내산업 전반 타격 우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0.3년에 불과하다. 중국이 한국 산업 기술을 따라잡는데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풍부한 인적자원을 앞세워 한국 기술력의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전자업체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때 '대륙의 실수'라고 불렸던 샤오미는 한국법인을 설립하며 현지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샤오미는 최근 한국법인인 샤오미테크놀로지 코리아를 설립했다. 2016년부터 한국에서 총판을 운영했던 직원을 중심으로 올해 법인을 설립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스마트밴드 등에서 최근에는 전기차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로봇청소기 기업 로보락은 지난 1일

국내에 두 번째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다. 올해 초 두 번째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한 로보청소기 점유율 국내 1위 업체 중국 로보락은 자체 플래그십 매장 외에도 전국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로보락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 이어 세탁건조기 제품을 선보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7년전 중국 동풍자동차가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도 달라졌다.

테슬라와 세계 전기차 양강 구도를 형성한 중국의 BYD는 BYD코리아를 통해 올해 1월부터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BYD는 이달 중 중형 세단 '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모델은 8%의 관세와 판매 인센티브,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국산 경쟁 제품보다 500만~1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BYD의 가성비는 규모의 경제와 배터리 자체 생산 등 부품 내재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에 기반해 다른 브랜드들이 쉽게 따라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국 전기차 브랜드 샤오핑도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는 자율주행과 함께 배터리 기술을 확보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 공략에 성공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모 이명희 이마트 지분 전량매수

계열 독립 속도... SSG닷컴 지분정리 과제

직접 매입으로 책임경영 의지
이마트·자회사 실적반등 관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 전량을 사비로 매입하며 독립 경영 체제를 본격화했다. 증여가 아닌 직접 매입 방식을 택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이마트의 실적 반등과 자회사 정상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약 2140억 8630만 원을 들여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전량을 인수하며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를 위한 본격적인 지분 정리에 나섰다.

이번 거래로 기존에 이명희 총괄회



장이 보유했던 이마트 지분 10%가 정 회장에 넘어가면서, 이마트에 대한 정 회장의 지분율은 18.56%에서 28.56%로 증가했다.

이번 지분 매수를 통해 정 회장은 독자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계열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인(및 그 친족)의 해당 계열사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 미만, 비상장사의 경우 10%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매수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율은 0%가 됐다. 이제 정 회장이 이마트 계열의 완전한 독립

을 이루기 위해 남은 과제는 동생 정용경 회장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SSG닷컴 지분 정리뿐이다. 현재 SSG닷컴의 지분은 이마트가 약 45.58%, 신세계가 약 24.4%를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이 개인적인 사비를 통해 모친의 이마트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독립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 회장은 이명희 총괄회장의 증여를 통해 이마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난 2020년 이명희 총괄회장은 당시 정용진 부회장과 정용경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해 그룹 내 경영권 승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2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긴장감 도는 대통령 관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IS

强달러 재점화... 원·달러 환율 최고 수준

美 트럼프 '경제 비상사태 검토'에
고용지표도 시장 예측 크게 웃돌아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환율은 트럼프의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소식과 미국의 고용률 호조에 힘입어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12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11.50원 상

승한 달러당 1472.0원에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를 마쳤다. 이는 올해 주간 거래와 야간 거래 증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앞서 지난 7일 환율이 1450원 수준까지 내린 지 3일 만이다.

최근 달러의 약세 요인이었던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된 데 이어, 미국의 고용지표도 시장 예측을 크게 웃돌면서 달러가 빠르게 강세 전환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현지 보도에 힘입어 달러당 1453.5원까지 하락(달러 가치 하락)했

다. 트럼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달러는 이날 약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는 빠르게 강세 전환했다. 타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는 109.23(100보다 높을수록 상대적 달러 강세)까지 상승했고, 같은 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64원까지 치솟았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 ▲尹대통령 연봉, 3% 오른 2억6200만원... '탄핵 심판'에도 월급 계속 /사진 뉴스
- ▲조국혁신당 "윤석열 버티기에 내수 침체... 대 국민 지원금 추진"

- ▲여 "민주당 '카톡 검열' 국민 상대 공포정치"... 야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 ▲여 "공수처, 대통령 경호구역 무단 침입은 법 위반 행위"

- ▲오세훈, 내란 선전 고발한다는 민주당에 "민주당 개명하라"
- ▲나경원, 야 '카톡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에 "나를 1호로 고발하라"

1분기 제조업 내수·수출·설비투자·고용 ‘모두 악화’ 전망

산업연구원, 1분기 경기실사지수

수출 1·2위 품목 반도체·자동차
3분기 연속 매출 추가감소 전망
설비투자·고용, 2분기연속 하락

탄핵 정국 속 경제 심리 위축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교역 불확실성 우려가 극심해지면서 새해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1분기에 소비부터 투자, 고용까지 경제활동 전반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1,2위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모두 3분기째 연속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그나마 내수 불황속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동력이 꺼져가는 상황이다.

1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매출(88), 수출(91)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3분

〈국내 제조업의 주요 항목별 BSI〉

/자료=산업연구원

	현황 BSI					전망 BSI				
	지수			전기비		지수			전기비	
	2024 2분기	2024 3분기	2024 4분기	2024 3분기	2024 4분기	2024 3분기	2024 4분기	2025 1분기	2024 4분기	2025 1분기
시황	91	86	84	(-5)	(-2)	97	93	87	(-4)	(-6)
매출액	94	87	87	(-7)	(0)	98	95	88	(-3)	(-7)
국내시장출하	92	86	86	(-6)	(0)	96	94	88	(-2)	(-6)
수출	99	90	91	(-9)	(+1)	101	96	91	(-5)	(-5)
재고	101	101	98	(0)	(-3)	98	100	97	(+2)	(-3)
설비투자	100	98	95	(-2)	(-3)	99	97	95	(-2)	(-2)
고용	99	98	96	(-1)	(-2)	100	99	96	(-1)	(-3)
경상이익	91	85	86	(-6)	(+1)	94	92	88	(-2)	(-4)
자금사정	89	86	83	(-3)	(-3)	91	91	85	(0)	(-6)

기 연속 하락세다. 설비투자(95), 고용(96) 역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주요 유형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모든 유형에서 100을 동반 하회한 가

운데 전분기 대비로도 모든 유형에서 동반 하락세다. 신산업(97)과 대형업체(94)가 100을 다시 하회하고, ICT부문(89)에서 2분기 연속, 나머지 유형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한편, 전분

기 대비로 기계부문(89)을 제외한 다수 유형에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업종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와 바이오·헬스 등 업종에서 100을 다시 하회하면서 모든 업종이 100을 동반 하회하고, 전분기 대비로 보더라도 무선통신기, 철강, 일반기계, 전유, 섬유 등 업종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하락하며 연초 매출 부진 우려가 제기된다.

2025년 연간 매출 전망 BSI 역시 91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2024년 전망치(99)보다 낮아졌다. 산업유형별로는 신산업(99)과 소재부문(88)을 비롯해 ICT부문(93)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대형업체(101)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기(105), 조선(101), 바이오/헬스(102) 업종만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도체(91), 디스플레이(97), 자동차(95), 일반기계(87), 화학(95), 철강(75), 섬유

(81) 등 다수 업종들의 경우 올해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이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증'(49%), '대외 불확실성 지속'(47%),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42%) 등의 순으로 많이 꼽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지속'(41%)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율 관세 부과 영향'(24%) 응답도 적지 않았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대체 효과'(13%)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BSI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9일~24일까지 1500개 제조업체가 응답한 결과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 4년새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 1위

2019년~2023년 가계부채 비중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재작년 기준 186.4%, 27개국 중 6위
21개국은 2019년 대비 비중 낮아져

가계부채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난 2019~2023년 사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다수의 주요국에선 이 같은 가구 빚 수위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내려갔다.

12일 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86.4%에 달했다. 이는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규모가 1.86배임을 뜻한다.

한국은 해당 비중 비교에서 27개국 중 6위에 올라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중

의 증가 폭이다.

2023년 수치가 공표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낮아졌다. 수치가 오른 나머지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유일하게 10%포인트(p) 넘는 증가 폭을 보였다. 이 비중이 2019년 173.7%에서 12.7%p나 커진 것이다.

그외 5개국은 증가 폭이 모두 한국의 절반 이내에 머물렀다. 호주 +5.8%, 멕시코 +2.8%p, 슬로바키아 +1.8%p, 룩셈부르크 +1.4%p, 스위스 +0.5%p였다. 총 38개 회원국 중 11개국(미국·일본 등)의 2023년도 수치는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아일랜드의 경우 2019년 140.8%에서 2023년 104.7%로 36.1%p나 줄어들었다. 또 같은 기간 스페인이 -17.3%p(99.4%→82.1%), 영국이 -12.5%p(149.2%→136.7%), 포르투갈이 -10.7%

p(122.0%→111.3%), 이탈리아가 -5.6%p(87.7%→82.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가구 빚은 최근 15년간 급증을 거듭했다. 해당 비중이 2008년 130.8%, 2011년 144.1%, 2014년 147.7%, 2017년 170.2%, 2020년 182.8%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 원을 넘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913조8000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총량 한도가 풀리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구 빚 증가는 민간소비의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5년도 소매유통 부문 전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소비여력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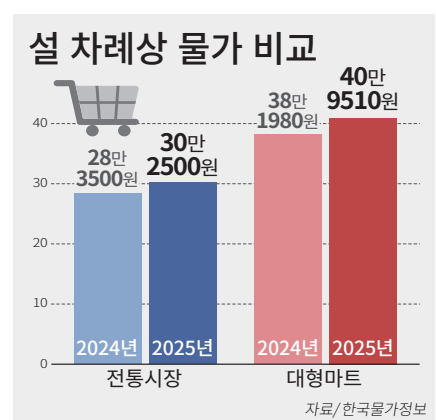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통시장 30만원, 대형마트는 40만원 4인가족 차례상 비용 '역대최고' 경신

한국물가정보, 차례상비용 조사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 설을 3주 앞둔 12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40만9510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6.7%와 7.2% 정도 상승했으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약 35.4% 높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부 가격이 소폭 하락한 품목도 있으나 과일류와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전체 차례상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차례상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류와 매년 변동이 잦은 채소류는 각각 전년 대비 57.9%, 32.0% 상승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두 품목으로 나타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정유경 회장, 신세계 지분 정리여부 관심

》1면 '정유진 신세계그룹...'서 계속

모친의 증여로 이마트 최대 주주가 된 정 회장이 이번에는 약 2140억원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며 독자 경영 체제를 위한 철차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마트 측은 정 회장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 의식과 자신감을 보여주기를 위해 직접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이마트 지분 매수는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 의식을 위해 정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하는 부담을 감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 하방 압력에 더해 이마트와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책임경영을 내세운 정 회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의 핵심 사업인 할인점 부문은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마트 할인점의 영업이익은 763억원이었으나, 2023년 3분기에는 733억원, 2024년 3분기에는 705억원으로 줄었다. 경기 침체로 고객들의 소비가 위축되며 대형 할인점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탓이다.

정유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1등 고객을 만족시키는 본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본업 경쟁력에서 답을 찾자"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문제도 정 회

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신세계건설은 그룹 내에서도 재무적 부담이 큰 회사로 꼽힌다.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공사 원가 상승,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3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전 분기 대비 60% 증가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 회장의 이마트 주식 매입으로, 동생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지분 정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정유경 회장은 주식회사 신세계의 최대 주주로 약 18.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유진 회장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을 사비로 매입하며 독립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한 만큼, 정유경 회장도 신세계 지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1면 '뿔달리 재점화...'서 계속

이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도 달러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25만6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측치인 16만명을 10만명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예측치를 크게 웃도는 고용 호재에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시카고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연준이 오는 3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5.5%로 전망했다. 전일 전망치인 56.2%에서 19.3%포인트(p) 높아졌다. 6월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44.6%에 달했다.

이날 달러인덱스도 장중 한때 109.98

까지 상승해 110선을 넘봤다.

전문가들은 오는 20일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일이 원·달러 환율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트럼프 1기 전후 금리와 환율 흐름을 보면, 트럼프 당선은 미국 시장 금리와 달러 가치의 상승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번 공약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극단적인 정책을 내걸었고, 시장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공약이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우려는 완화되고, 달러 가치 상승도 조금씩 진정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면서 "미국 금리나 환율 움직임을 보면 이번 트럼프 취임을 전후로 한 시기도 트럼프 리스크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주요 대학, 등록금 인상 저울질 “5%대 논의” vs “올해는 동결”

〈사립대〉

〈국립대〉

십수년간 동결로 재정 압박
수도권 대학 중심 인상 움직임
국총협 “정부 재정지원 요구”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거점국립대학총장 협의회'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9개 지방 소재 국립대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정부 지원에 더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데다, 수험생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서 학생 모집난으로 인상을 강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9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 모임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국총협)는 지난 10일 올해 등록금 인상여부와 관련해 회의한 결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국총협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을 공식 요청한데 이은 결정이다.

국총협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이고 정부 사업 계획이 등록금 동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다만, 교육의 질을 고려해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0일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내국인 학부생 및 특수·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을 법정한도인 5.49% 인상하는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고려대와 총학생회는 오는 17일과 23일 추가 등심위 회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지난 2010년 이후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연세대도 등록금 5.49% 인상하는안을 학생회에 제시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한 뒤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으며, 서강대도 지난달 26일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동덕여대, 상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처럼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등록금이 십수년간 동결되는 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해 왔으며, 2012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사실상 동결을 강제해 왔다. 한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은 16년 전에 비해 3분의 1 이상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은 135.9%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립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의 동결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립대보다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고, 이른바 ‘인서울’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 유치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으로, 이중 국립대학 평균은 427만원, 사립대학은 763

만원이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여부가 당장의 학생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 한 입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지역 국립대 인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이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할 수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일 뿐”이라며 “이미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편차가 벌어졌음에도 수도권 대학 대한 열망을 뒤집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시에서 이미 지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 소재 41개 대학에는 총 19만4169명이 지원해, 전년(18만9005명)보다 5164명(2.7%)이 증가한 반면, 지방 소재 119곳의 지원자 수는 20만3188명으로 전년(20만6781명) 대비 3593명(1.7%)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더해 수능마져 난이도가 높지 않아 상위권 동점자가 늘어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서울권 대학으로 정시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그러면서 지방 소재 대학에선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현상이 작년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현재, 주중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심리

尹, 첫 변론기간 불출석 예정

영장 집행시도 등 신변안전 우려
윤갑근 변호사 “경호문제 해결돼야”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 차벽과 집회로 인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석해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지만, 불출석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한다.

현재는 앞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수명재판관이란 준비절차를 이끌며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선별·정리하고 압축해 향후 열릴 변론을 준비하는 역할이다.

현재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21·23일과 내달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14일에는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해 관계인과 방청객 앞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짚는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검토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윤 대통령은 현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등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한 달째 관저 밖을 나서지 않는 상태로,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안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을 나서면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첫 변론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수 있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 또 탄핵안에 내란죄를 제외한 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영양군
YEONGYANG-GUN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가 있는 ~ 생활!

“AI와 함께, 녹색금융·내부통제 혁신 새 시대”



신한금융그룹

② 진 옥 동 회장

올해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의 본질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 금융소비자가 믿고 돈을 맡기고 빌릴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금융을 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업점을 혁신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경영 환경이 예상된다”며 “올해가 신한이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를 신한이 핵심 경쟁력으로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AI 은행원 도입, 고객 편의성 극대화
스마트 기술로 ‘비대면 한계’ 극복
금융 소외계층 맞춤형 AI 영업점 운영

AI로 고객 맞춤 투자 정확성 강화
빠르고 간소화, 고객경험 혁신 실현
AI·사람 공존, 미래형 서비스 구축

◆위기가 기회로… 내부통제 강화

신한금융이 내부통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는 지난 해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 때문이다.

앞서 신한금융의 계열사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장내 선물 매매와 청산으로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통상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 공급자(LP)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목적에서 벗어나 장내 선물 매매를 하다가 대규모 손실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후 그룹 차원의 감사를 진행했

다.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직 개편도 실시했다. 신한금융의 주요 4개(전략·재무·운영·소비자) 부문

중 하나인 소비자보호부문에 속해있던 준법지원파트를 대표이사 직속 기구로 독립시켰다.

준법지원팀이 소비자보호부문에 있을 당시 준법감시인은 소비자보호

부문장을 겸임했지만 제도 개편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준법 감시 업무만 맡는다. 소비자보호부문장 역시 소비자보호 업무에만 주력한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의 책임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문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내부통제에 역점을 두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객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살피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도입한 영업지점

금융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인다.

현재 신한금융의 주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영업지점을 혁신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 된 시기이지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AI브랜치는 AI 은행원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융업무를 처리한다. AI와 사람의 공존을 콘셉트로 AI 기술을 적용한 미래의 영업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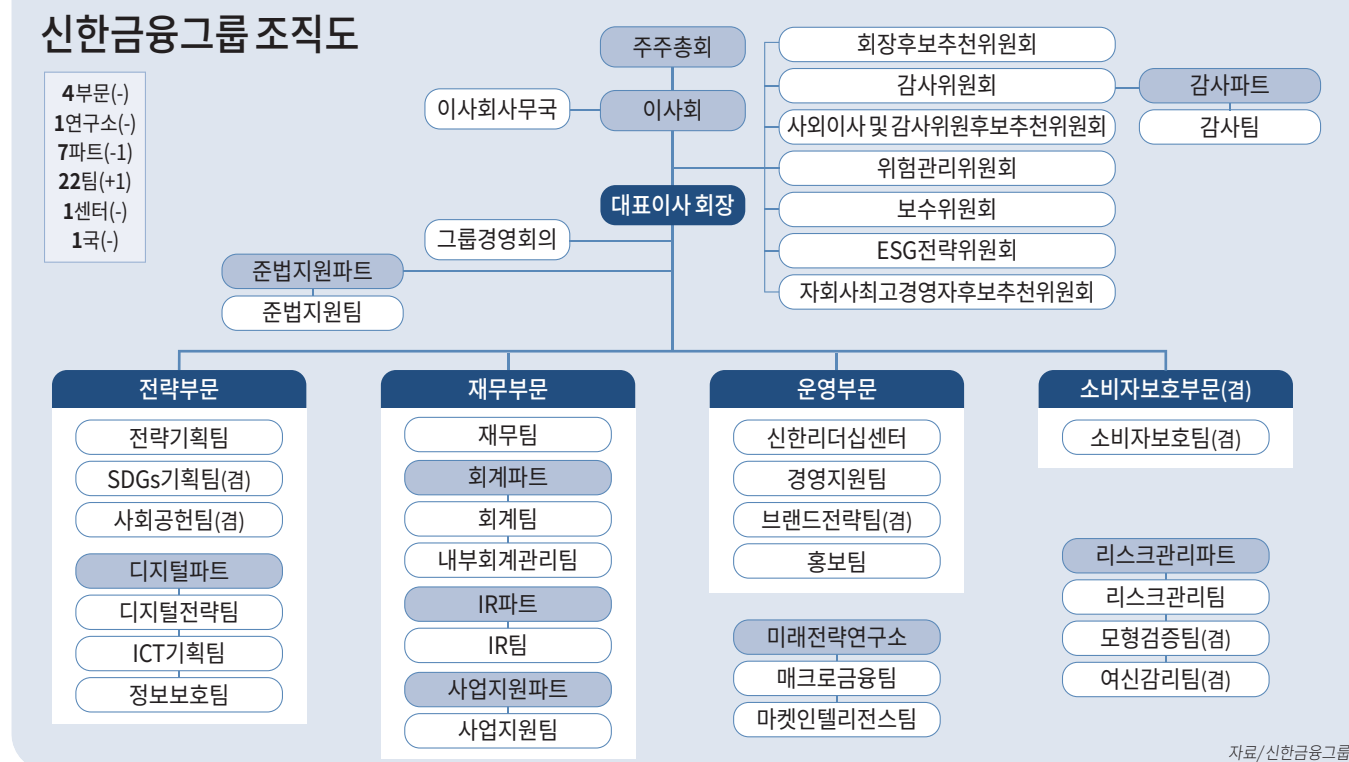
신한은행 관계자는 “AI 은행원은 입출금 창구에서 가능한 업무의 약 60%를 AI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AI 브랜치는 비대면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주말밖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올해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한 솔뱅크’에 AI 투자서비스를 탑재한다. AI투자메이트는 AI를 활용해 각종 수치를 확인하고 금융투자 정보가 맞는지 팩트체크 해주는 서비스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유연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진 회장은 “고객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보며 본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겠다”며 “속도는 빠르게, 질치는 간소하게 개선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녹색금융을 확대한다. 녹색금융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서비스다. ▲친환경 제거투자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신한금융그룹 조직도



자료/ 신한금융그룹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김민전 ‘백골단 회견’ 등 극우행태에 “중도층 이탈할 것”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탄핵집회 참석자, 중국인”
윤상현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전광훈 목사 집회서 큰 절 등 ‘논란’
전문가 “여론 호도하며 강성층 결집
與 지도부, 배척·단호한 행동 필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으킨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등으로 당내 극우적 주장이 어떠한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공식석상에 드러내는 행태가 두드러져, 중도층 포섭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하얀 헬멧을 쓰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는데, 자신의 예하조직의 이름을 ‘백골단’이라고 소개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단을 뜻하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운영한 정치 강패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

권 당시 백골단은 하얀 헬멧과 청색 자켓을 입고 시위대 대오를 흐트러 놓는 역할을 맡았으며 당시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자회견 이후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질의를 경청하지 않고 잠에 든 모습이 카메라 포착되면서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진행한 기자회견을 철저히 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고 탄핵에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전복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과 출처 불명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선을 넘는 극우적 행태를 반복하면 당의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제가) ‘양두구육’, ‘신구부’라는 말을 썼다고 공공롭게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다.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에 대해 적절하진 않으나, 당사자가 사과했으니 징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이외에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큰 절을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거 한동훈 지도 체제에서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성에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반사로 얻게된 이득이다. 마치 극우적 행동이 옳아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기 강성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계엄 쿠데타와 똑같은 행동”이라며 “결과적으로 수권정당과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일이고, 중도층이 거부감 갖고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배척하려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6당, 내란특검법 재발의... 與 “자체수정안 논의”

野, 與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 수용
갈등여지 최소화해 이탈표 공략
與, 수사범위 6시간 한정 ‘논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와 처리를 두고 이반진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갈등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 특검

법이 처리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도 없었다. 부결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새 특검법에선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확장됐다.

특별검사와 파견 공무원도 각각 40명에서 30명, 8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90일에서

70일로 줄였다. 또한 새 특검법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여당 입장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가 포함되는 등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

시간까지 한정할 자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뺄려야 마감 세일이나”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건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 폭락... “국정 정상화 시급”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 -5.3%

〈세계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률〉

(단위 : 각국 통화 단위, %)

기간/국가별 달러대비 환율·변동률	대한민국 (KRW)	러시아 (RUB)	유로 (EUR)	영국 (GBP)	일본 (JPY)	중국 (CNY)	30개국 통화 평균 변동률	
2023년 12월 말	1,288.0	89.4891	0.9059	0.7855	141.04	7.1102	-	
변동률	2023년 12월 말	+0.2	+0.5	+1.4	+0.9	+5.1	+0.4	-1.2
	2023년 중	-1.8	-18.2	+3.1	+5.4	-7.0	-2.9	-4.4
2024년 12월 말	1,472.5	113.7296	0.9659	0.77910	157.20	7.2994	-	
변동률	2024년 12월 말	-5.3	-6.4	-2.1	-1.7	-4.7	-0.8	-2.3
	2024년 중	-12.5	-21.3	-6.2	-17.	-10.3	-2.6	-8.9

* 미 달러화 대비 절상(+), 절하(-)율, 원/달러 환율은 증가 기준, 타 통화 환율은 블룸버그 증가 기준 /한국은행 ECOS, Bloomberg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 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

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

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증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려워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연금부터 자산관리까지...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박차

고금리 기조 마무리... 이자익 감소 비이자익 강점 퇴직연금시장 공략 신한銀 연금라운지 10곳 운영 등 은행권, 고액 자산가 확보 쟁결을

은행권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22년부터 이어졌던 고금리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은행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 이익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비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는 퇴직연금 및 자산관리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총 1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 대비 3000억원 감소한 규모이며, 직전년도인 2023년 3분기와 비교해선 2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1년 새 1.63%에서 1.52%까지 0.11%포인트(p) 내렸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신호탄으로 고금리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자이익 감소에 은행권은 비이자이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이자



서울 여의도 금융가.

뉴시스

익은 카드, 방카슈랑스, 증권, 자산 운용 등 대출 외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말한다. 금리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변하는 이자이익과는 달리 금리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은행들의 비이자이익은 총 2조3000억원이다. 직전 분기보다 8000억원 늘었지만 전체 매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했다. 미국 4대 상업은행(BoA·시티·JB모건·웰스 파고)의 비이자이익 매출 비중이 30~35% 수준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다.

은행권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 시장을 우선 공략하고 있다. 은행만의 강점인 대면 채널을 통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성 고

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은 총 382조4000억원이다. 2022년과 비교해 46조5000억원(13.8%) 늘었다. 특히 의무가입 상품이 아닌 개인형 IRP 적립액은 같은 기간 31.2%나 늘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오는 2040년에는 117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행은 연금 특화 점포인 KB골드라이프 연금센터를 전국 13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1대1 전화 상담 서비스도 도입했다. 신한은행도 퇴직연금 상담과 더불어 주택연금 상담, 보험 설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신한

연금라운지를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이다.

일부 은행은 고액 자산가를 위한 프라이빗뱅킹(PB)을 연금 특화 점포와 결합해 VIP 고객을 겨냥했다.

KB금융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전체 국민 가운데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46만1000명이다. 2020년과 비교해 8만7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고액 자산가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2826조원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1억원 이상의 연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세무·부동산 등 종합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도 금융 자산 3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고객에게 지점장급 직원이 투자 성향에 맞는 1:1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체어스 W'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저원가성 예금 감소 등 금융 환경 변화로 이자 마진 규모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이자이익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은행들이 퇴직연금, 자산관리 등에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교보생명

동계 우수 FP 자녀 해외어학연수 진행

교보생명은 겨울방학을 맞아 '2025 동계 우수 재무설계사(FP) 자녀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우수한 실적을 올린 FP를 선발해 자녀 해외어학연수 기회를 준다. 전속 설계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했다. 이번에 선발한 우수 FP 자녀는 초·중·고·대학생까지 55명이다.

지난 8일부터 17박 18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사립학교에서 수준별 영어 수업을 받는다.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생활과 문화를 체험한다.

DB손해보험

설 명절 맞아 20~24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DB손해보험은 설명절을 맞아 오는 20~24일까지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방 점검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오토케어서비스 특약 가입고객은 브레이크 오일과 타이어 공기압 등 25개 항목 점검에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추가한다. 특약 미가입 고객은 12개 항목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적용한다.



이승희 흥국생명 인사팀장이 11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이성일 인천 해피홈 보육원 원장(왼쪽)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흥국생명

흥국생명

인천 해피홈 보육원에 600만원 후원금 전달

흥국생명은 핑크스파이더스 배구단 흥경기에서 인천시 해피홈 보육원에 6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인천 지역 아동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이다. 보육원 아동 20여명은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기념품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다. 지난해 서브 에이스 기록을 통해 적립한 6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도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노후 시설 보수와 컴퓨터 교체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9@

대형 평형 청약 잇단 미달... 신축이어도 고분양가 '부담'

신규단지 중 소형 경쟁률 '고공행진' 분상제 등 희소가치 따라 쏠림 지속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 신축 단지에 대한 열기는 여전하다. 다만 대형 평형이 잇따라 미달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중대형 면적의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서울'의 당첨자 계약이 오는 14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상봉터미널 자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지하 8층~지상 49층, 5개동,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총 999가구 규모다. 이 중 800가구가 일반 분양됐다.

지난달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전용면적 59㎡는 21가구 모집에 2214명이 몰려 105.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44A㎡는 40.27대 1, 44B㎡는

3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많은 119세대를 모집한 98B㎡형은 362명이 접수해 3.04대 1을 기록했다. 84세대를 모집한 98C㎡형은 119명이 접수, 1.42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두 타입 외에도 ▲98A㎡ ▲98D㎡ ▲118㎡는 공급수량에 비해 신청자가 적어 2순위 청약까지 모집했다. 118㎡의 경우 82가구 모집에 67명이 접수해 미달됐다.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통해 들어서는 '서울원아이파크'는 지난 8일 계약포기가 이어지면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미계약 세대 558가구의 무순위 청약(줍줍)을 진행했다.

전용 74㎡ 3가구와 84㎡ 111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용 105㎡, 112㎡, 120㎡ 등 중대형 면적이다.

서울원아이파크 역시 1순위 청약 당시 1414가구 모집에 2만121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14.94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59㎡A형으로 19가구 모집에 4054명이 몰려 268.5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242세대를 모집한 105㎡A형은 603명이 접수해 2.49대 1, 241세대를 모집한 120㎡A형도 521명이 접수, 2.61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112㎡B ▲112㎡C ▲120㎡C ▲143㎡ ▲145㎡ ▲159㎡ ▲161㎡ ▲170㎡는 공급수량에 비해 신청자가 적어 미달됐다.

112㎡C형의 경우 18가구 모집에 9명이 접수, 절반에 불과했다.

줍줍에 1만명이 넘게 몰려 전 타입 청약 마감에 성공했으나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전용 74㎡로 3가구 모집에 약 1650여명이 몰려 552.67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60.63대 1로 나타났다. ▲2023년(47.66대 1) ▲2022년(31.14대 1)과 비교해 더 치열해진 결과다.

지난해 10월 강남구에 공급한 '디에이치 대치 에텔루이' 94㎡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단지로 추첨제 비율이 50%에 불과했지만 무려 5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자금 부담, 소규모 가구 수 증가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질어질 전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입지의 희소가치 등에 따라 수요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jw13@

이달 셋째 주 전국 6곳서 217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177가구(일반분양 80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구 동구 신천동 '더팔리스트메시앙', 경기 성남시 금토동 '성남금토A4블록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 경기 의왕시 청계동 '의왕청계2A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트라' 1곳이 개관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 '더팔리스트메시앙'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아파트 418가구·오피스텔 32실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100~117㎡, 총 4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후분양으로 공급되며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효신초가 연결한 초포아 단지로 수성구 학원가와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반경 1km 내 동대구역 및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해 대구지하철 1호선·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등을 통한 지역 내의 이동이 용이하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방배6구역 주택 재건축을 통해 '래

미안원페트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동, 총 109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120㎡, 총 48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후분양으로 공급되며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내 방역 역세권 단지로 서리풀터널·서초대로를 통해 강남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중심 반경 2km 내 롯데마트, 서울성모병원, 서리풀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위치하며 방배초, 서문여중·고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전지원 기자

정유업계, '보릿고개' 끝 보인다 SAF·액침냉각 등 신사업 속도

(지속가능항공유)

지난해 4분기 정제마진 반등
유가 안정세... 실적개선 기대
"글로벌 경기 회복세 관전"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스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제품 수요 감소 영향으로 지난 3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정유 4사의 지난 3분기 합산 영업 손실은 약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4분기 들어 정제마진 반등에 성공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평균 배럴 당 4.1달러를 기록하며 수익분기점에 진입했다. 이에 최악의 구간은 지나갔다는 평가가 따른다. 지난 3분기 정제마진은 배럴 당 평균 3.5달러로 손익분기점 수준인 4~5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유설비 가동률 조정으로 정제마진 회복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에서 새해 정제설

비 수준 물량이 지난해 대비 줄고 폐쇄 물량은 늘어나며 수급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또한 4분기에 변동 폭이 적게 형성돼 안정세를 보였다.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 9월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나 지난 10월 기준 76.57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가는 지난 9월 대비 12월에 소폭 하락했으나 해당 기간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긍정적 재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고평가손익의 회복과 함께 등·경유 마진 회복으로 스팟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정유 4사의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에스오일의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789억원으로, 직전 분기 영업적자 4149억원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4841억원 적자에서 291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긍정적 재고에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정유업계에 통상 환율 상승은 악재이나, 기존

에 사들인 원유 재고 평가에는 긍정적이었던 설명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율 급등은 업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특성상 환율이 오를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 수요 감소의 근본적 원인인 글로벌 경기 불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수익성 회복에 관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분기 실적 개선 요인은 단기적이라 올해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유업계는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선박유, 액침냉각 사업 등 비정유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활로를 모색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4분기에는 직전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많다"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동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일본 시즈오카에 위치한 후지 스피드웨이 서킷에서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이 주행하는 모습.

현대차, '아이오닉5N DK에디션' 공개

일본 레이스 초치야 케이치 협업

현대자동차가 일본 유명 레이스와 함께 개발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의 한정판을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차는 10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2025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5N DK에디션'을 공개했다.

아이오닉5N DK 에디션은 현대차의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N을 일본 레이스 초치야 케이치와 협업해 만든 모델이다. DK는 초치야 케이치의 별명 '드리프트킹'에서 따왔다.

아이오닉5N DK 에디션에는 ▲두랄

루민을 정밀 가공해 제작한 6P 모노블록 브레이크 캘리퍼 ▲기존 대비 면적을 54% 넓히고 마찰계수를 강화한 전용 브레이크 패드 ▲휠과 타이어 안착면에 특수한 톱니 가공 구조를 적용한 21인치 경량 단조 휠 ▲차량 무게 중심을 낮추는 로워링 스프링 등 전용 부품이 장착됐다.

또 탄소섬유 소재 프론트 스플리터, 사이드 스커트, 리어 윙 스포일러를 적용해 차체를 노면으로 누르는 힘인 다운포스를 증가시키고 접지력을 향상해 고속 주행 안정성도 강화했다.

현대차는 이번에 공개한 아이오닉5N DK 에디션을 올해 상반기 국내와 일본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HD현대중, 페루 함정 건조... 중남미 진출 박차

시마조선소 함정 프로젝트 착공식
내년 인도... "양국 방산협력 기여"

'K-방산'이 새해 시작과 함께 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페루 국영 시마(SIMA) 조선소에서 함정 프로젝트 착공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페루에 함정 3종(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 총 4척을 수출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 페루 정부와 6406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건조된 함정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돼 페루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구스타보 아드리안센 올라야 총리, 알테르 아스푸디요 국방부 장관



지난 10일(현지시간) HD현대중공업과 페루 시마조선소가 함정 3종, 4척에 대한 공동착공식을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특수선사업대표, 구스타보 아드리안센 올라야 페루 총리,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알테르 아스푸디요 페루 국방부 장관. /HD현대중공업

을 비롯해 루이스 호세 플라르 피카리 해군참모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페루 조선업 역사에서 이번 착공식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페루 해군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착공식에서 "이번 착공식은 K-함정 중남미 진출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며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오션, 해상풍력 하부 부유체 모델 개발

'윈드하이브 15-H3' DNV 개념 승인

한화오션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핵심 기체재인 하부 부유체의 자체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업계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까지 수용함으로써 풍력발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한화오션은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해상풍력발전기 하부 부유체의 개념설계(Pre-FEED)에 대한 개념 승인(AIP)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념 승인은 기술의 안정성과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인증 절차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획득한 하부 부유체 모델은 한화오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윈드하이브 15-H3'이다. 2023년 한화오션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브랜드를 '윈드하이브'로 명명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탑재한 '윈드하이브(WindHive) 15-H3'(노란색 구조물)의 조감도.

하고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숫자 '15'는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H3'는 3개의 육각기둥으로 구성돼 있다는 의미다. 기둥 모양을 육각형으로 채택한 것은 기둥 간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화오션은 이번 승인 획득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 건조 능력에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까지 확보해 해상풍력 솔루션의 폭을 넓혔다. /양성운 기자

LG엔솔, 앰테라모터스에 배터리 공급

(美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7년간 원통형 배터리 4.4GWh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앰테라모터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앰테라모터스, 국내 배

터리 팩 제조사 시티엔에스(CTNS) 등과 3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간 앰테라 모터스에 원통형 배터리(2170) 4.4GWh(기가와트시)를 공급한다.

앰테라모터스가 개발한 태양광 전기

차 'Aptera(앰테라)'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팩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주행거리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다. 지난해 시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5만여 대의 선주문을 받아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앰테라 모터스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더욱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차현정 기자

에코프로, 전문가 제도 도입... 1호 명인 선발

전문지식 갖춘 핵심 인재 육성

에코프로가 전문지식을 갖춘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독보적인 직무 능력을 갖춘 임직원을 '명인'으로 선발해 임기 3년의 준임원 대우를 한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 설비기술 팀 배문순 직장을 제1호 '명인'으로 선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코프로 명인은 경력 10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 및 사내 혁신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발됐다.

배문순 명인은 설비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동료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오류를 잡아 나가면서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현정 기자

문혁수 “조 단위 매출 가속화… AI 반도체 기판 시장 선도”

〈LG이노텍 대표이사〉

LG이노텍 CES서 미래 전략 공개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가 차세대 고부가 반도체 기판 사업을 조 단위 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분야에서 쌓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모빌리티와 로봇 등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LVCC에서 열린 ‘CES 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4공장에서 북미 빅테크 기업인 FC-BGA 양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2년 FC-BGA 사업 진출 선언 이후 2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FC-BGA는 전선 없이 AI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 기판에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차세대 기판이다. 반도체 기능이 많아질수록 기판도 커지는 상황에서, 집적도를 더 높일 수 있어 주목 받는 신기술이다.

후지카메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FC-BGA 시장 규모는 2022년 80억달러(11조6912억원)에서 2030년 164억 달러(23조9669억원)로 2배 넘게 커질 전망이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가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LVCC에서 열린 ‘CES 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LG이노텍

문혁수 대표는 “북미 빅테크 기업 외 여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지분 투자나 M&A 등 FC-BGA 관련 외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시장 공략

“

FC-BGA 시장, 2030년 2배 성장 북미 빅테크 기업향 제품 공급 시작 미세회로 구현 유리기판 본격 시장 상 회로 왜곡 최소화 차세대 기술 주도

휴머노이드 리딩 기업들과 협력 강화 멕시코 공장 자동화로 美 시장 공략 중국 카메라 모듈 업계 추격 대응 베트남-국내 생산 이원화 경쟁력 ↑ 2030년 신규 사업 매출 8조 목표

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LG이노텍은 이번 CES 2025에서 처음 선보인 차량용 AP모듈과 함께 FC-BGA를 앞세워, 반도체용 부품 시장 키 플레이어로서 조 단위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지난해 11월 공시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통해 신규 육성사업 매출을 2030년까지 8조원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표는 미세 회로 구현에 유리한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이제 장비 투자를 한다”며 “올해 말부터는 유리 기판에 대해 본격 시장 상(시제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기판의 코어(중심부)를 글라스로 바꿔 회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 대표는 “(유리기판은) 가야만 하는 방향이고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양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라며 “LG이노텍도 늦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모바일에서 쌓아온 카메라 모듈, 센싱, 제어, 기판 등의 원천 기술도 모빌리티, 로봇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해가고 있다.

문 대표는 특히 생성형 AI 시대 급격한 성장세인 휴머노이드와 관련해 “LG이노텍은 글로벌 1위의 카메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분야 주요 리

딩 기업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CES 개막을 앞둔 지난 6일 기조연설 무대에 휴머노이드 로봇 14개와 함께 오른 것과 관련 문 대표는 “그때 무대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중 절반 이상의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미국 통상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략적 글로벌 생산지 운영과 공장 자동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멕시코 공장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공장 자동화를 공정에 빠르게 확산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카메라 모듈 업계의 추격에 대해서는 “생산을 이원화해 베트남 사업장은 기존 스마트폰용 레거시(Legacy) 카메라 모듈 제품의 생산 핵심 기지로 활용하고, 국내 사업장은 마더 팩토리로서 R&D를 비롯해 고부가 카메라 모듈 및 신규 애플리케이션용 광학 부품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고객가치 높여 유료방송 위기 극복”

LG헬로비전 ‘신년 타운홀 미팅’ “홈·미래 사업서 새 성장 동력 발굴 고객 경험 개선해 핵심 목표 매진”

LG헬로비전이 새해를 맞아 고객가치 경영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12일 밝혔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사진)는 지난 9일 서울 상암 본사에서 열린 ‘2025 신년 타운홀 미팅’에서 “질적 개



타운홀 미팅에는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CEO 신년 인사 ▲2025년 전략방향 공유 ▲경영진 Q&A 등으로 새해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행사는 현장 진행과 영

상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고객 경험 혁신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전반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사진)는

이날 “유료방송 시장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본과 내실에 충실하며 강한 실행력과

상 생존계를 병행해 전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렌탈과 교육 등 신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한 해였다”며 “서비스 전반에서 차별적 고객가치를 구현해 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본과 내실에 충실하며 강한 실행력과

혁신적인 일하는 방식을 통해 차별화된 성장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강조하며 “홈 및 미래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목표에 매진하자”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과정 관리와 실행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LG헬로비전은 2025년을 고객가치 경영에 기반한 도약의 해로 삼고, 질적 성장과 미래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

리멤버

경력직 스카웃 제안 누적 800만건 돌파

채용 플랫폼 리멤버가 자사 플랫폼을 통한 경력직 스카웃 제안이 800만건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검색하고 입사를 제안할 수 있는 ‘인재 검색’ 서비스를 출시한 지 5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리멤버의 인재 검색 서비스는 대기업 재직자 50만 명, 전문직 종사자 15만 명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인재풀을 강점으로 한다. 경력직 핵심 인재를 찾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스카웃 제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리멤버에 프로필을 등록한 회원이 받은 평균 스카웃 제안 수는 13건이다. 가장 많은 스카웃을 제안받은 회원은 총 1117건을 받았다.

리멤버 관계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는 핵심 인재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리멤버는 경력 채용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개인 회원에게는 만족스러운 스카웃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채용 플랫폼 리멤버가 자사 플랫폼을 통한 경력직 스카웃 제안이 800만건을 돌파했다. /리멤버

틱톡, 19일 이후 퇴출 위기… 美 대법원, ‘안보 우려’에 금지법 지지

사업 매각 없으면 美 시장 퇴출 현실화 표현의 자유 논란에도 국가 안보 우선

틱톡이 오는 19일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퇴출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 위협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다. 이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이 수정 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틱톡 측 주장에 따라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선전 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법원이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엘레나 케이건 판사 역시 “틱톡 금지법은 외국과 협력하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



지난해 3월 13일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는다”고 설명했다.

◆**틱톡 금지법, 국가 안보 위협에 초점**
틱톡 금지법은 중국 소유의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로 유출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 미 의회는 틱톡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270일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

스 중단을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틱톡은 오는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틱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신규 다운로드도 차단되고, 기존 사용자도 기술 지원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게 돼 서비스 품질 저하로 결국 시장에서 퇴출 당할 가능성이 크다.

틱톡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텍사스’를 도입하며 15억 달러를 투자해 오라클 데이터센터와 협력하는 등 규제 완화 노력을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지난해 초 틱톡이 여전히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 본사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프로젝트 텍사스만으로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틱톡의 변호인 노엘 프란시스코는 심리에서 “틱톡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헌법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플랫폼을 침묵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틱톡 탈출 러시… 바이트댄스, 美 사업 매각 가능성도**

틱톡 금지법이 시행되면 경제적·산업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의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약 1억7000만 명에 이른다. 특히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고 및 콘텐츠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기에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크리에이터도 급증한 상황이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틱톡 금지 위기에 대비해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LG HelloVision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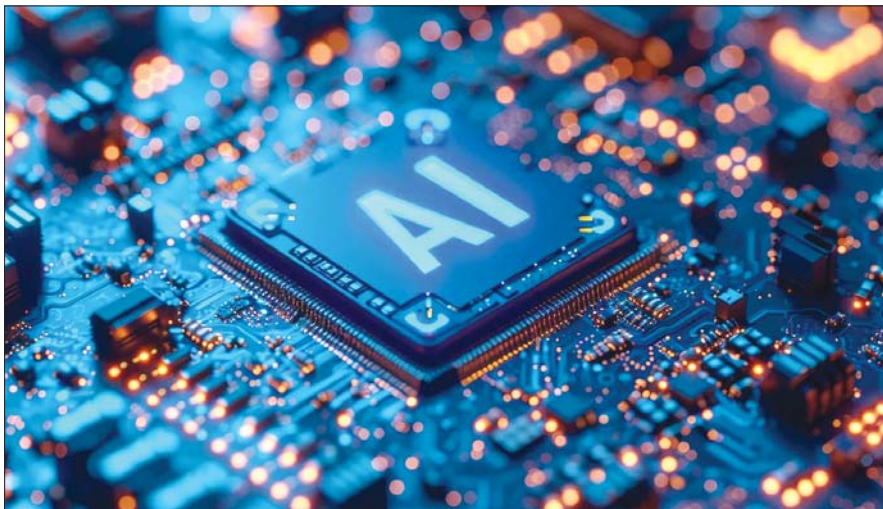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外人, '반도체株'로 복귀... 트럼프 수혜 '방산·조선'도 쑥쑥

外人, SK하이닉스 9612억 사들여 새해 들어 7거래일간 17.02% ↑

삼성전자, 2374억... 순매수세 반전 악재 선반영 평가로 상승여력 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트럼프 취임 앞두고 성장 가능성



반도체 칩셋의 모습.

/PIXABAY 무료 이미지

외국인 투자자가 새해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집하며 지난 8월부터 지속됐던 코스피 순매도세를 순매수 전환시켰다. 이외에도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방산, 조선 관련 종목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해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각각 9612억원, 2374억원씩 담았다. 외국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SK하이닉스는 새해들어 7거래일 동안 17.02% 상승하며 '20만닉스'에 복귀했다. SK하이닉스가 증가 기준 20만원을 넘긴 건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외국인 보

유율도 55.37%를 기록하면서 최근 6개월 사이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속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반등의 주인공은 반도체로 2일부터

7일까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0.8%포인트, 0.7%포인트의 지수 상승 기여도를 기록했다"며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기대감이 높고, 12월 반도체 수출이 11월보다 나아진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는 2일부터 7일까지 3.9% 급등했다.

외국인들은 새해 들어 코스피에서 1조4344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

록하며 22조4617억원을 팔아치웠으나 이달 들어 순매수 전환된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으로, 6개월 만에 순매수세로 반전되면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16일 8만200원에서 연말 증가 5만3700원까지 내려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3.95%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외국인 순매도 중심에 있던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은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높여주는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5만전자'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5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밸류에이션 저점에 머물러 있고, 악재들을 선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오른 모습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43% 상승하며 증가 5만7300원에 마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모든 악재를 선

반영한 주가로 판단돼 하락 위험은 제한적인 반면 향후 상승 여력은 커질 전망이다"이라며 "1분기부터 범용 메모리 재고가 감소세에 진입했고, 2분기부터 엔비디아향 HBM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트럼프 수혜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117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조선주인 한화오션도 1062억원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산업 성장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에는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각각 1172억원, 521억원씩 사들이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김 연구원은 "7일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단기 반등에 성공한 반도체를 대신해 바이오, 조선, 방산 등 트럼프 정책 수혜주가 빠르게 상승했다"며 "시장에 대한 생각을 낙관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일부 차별을 뒤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순자산 1兆 돌파

한해동안 순자산 총액 247.1% 늘어 주식형 ETF만으로 이룬 성과 '주목' 액티브 ETF 운용 특화 하우스로 꼽혀

상장지수펀드(ETF)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소형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한해동안 순자산을 주식형만으로 약 250% 늘리며 1조원대를 넘겨 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ETF의 순자산총액은 173조56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말 121조657억원보다 43.36% 증가한 규모다.

ETF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자본이 몰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은 각자의 상품 수익률을 올리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와중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올해 '낭중지추(囊中之錘)'의 지력을 보이며 업계의 주목 받고 있다.

2008년 7월 투자자문사 형태로 출범한 타임폴리오는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액티브(Active)' ETF

를 운영하는 것에 특화된 하우스로 꼽힌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액티브 운용 전략은 시장에서 높은 순자산총액(AUM)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 7일 기준 'TIMEFOLIO 액티브 ETF13종의 순자산 합계는 1조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5월 ETF를 처음 상장한 이후 3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국내 액티브 ETF 전문 운용사 가운데 순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선 운용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유일하다. 국내에서 액티브 ETF 상품을 주력으로 삼는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이 있다.

아울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 증가율은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2023년 말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 증가율은 247.1%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측은 "채권 및 금리형 ETF 없이 주식형 ETF만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특히 업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보다 높은 증가율을 달성한 하나자산운용의 증가율은 248.0%인데, 하나자산운용의 주력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 등으로 주식은 운용자산현황에서 7% 정도다. 결국 액티브 ETF 쪽에서 가장 큰 순자산총액 증가율을 달성한 자산운용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인 셈이다.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타임폴리오만의 경쟁력은 늘 시장을 리서치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패시브(Passive) ETF 출시는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패시브 운용은 우리 같은 소형사가 출시해도 이미 시장을 선점한 대형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보수 인하 경쟁에 뛰어 들기보다는 액티브 ETF로 고객들에게 수익을 돌려드리고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ODEX TDF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 출시 30개월 만의 성과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타깃데이터펀드(TDF) ETF 3종의 순자산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6월 말 상장 이후 약 30개월 만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은퇴 목표 시점(벤티지)에 따라 'KODEX TDF2050액티브' 'KODEX TDF2040액티브' 'KOD

EX TDF2030액티브' 등 3종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만 1361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는 전체 TDF(194개) 합산 유입액인 2조6000억원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KODEX TDF2050, 2040, 2030의 상장 이후 수익률은 각각 48.7%, 41.6%, 33.1%다.

KODEX TDF액티브는 전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글로벌지수 ETF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나스닥100 ETF를 추가로 자산에 편입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만기가 다양한 국내 채권에 투자한다. 또한 최저 수준의 연 0.3% 총보수와 더불어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지정가격 매매, 거래일 포함 3일이라는 짧은 환매 기간, 투자자산에 대한 실시간 공개 등 ETF만의 장점이 TDF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스마트연금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유입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원관희 기자 wkh@



코스피가 전 거래일(2521.90)보다 6.12포인트(0.24%) 내린 2515.78에 마감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23.52)보다 5.63포인트(0.78%) 하락한 717.89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60.5원)보다 4.5원 오른 1465.0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코스피 2500선 회복에도 불안요소 '여전'

금주美·中 경제지표 발표 등 변수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했지만, 추가 상승을 뒷받침할 뚜렷한 호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지표 발표와 핵심 기업실적 공개가 국내 증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73.86포인트(3.02%) 상승한 2515.78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12.13포인트(1.71%) 오른 717.89를 기록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502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개인 투자자와 기관은 각각 1조1163억원, 7705억원을 순매도했다.

황준호 상산인증권 연구원은 "CES 2025를 계기로 인공지능(AI) 관련 테마가 주목받으며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수출 호조 소식이 전해진 화장품 업종과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수혜 기대를 받는 조선 업종도 상승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의 반등에도 전문가들은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중국의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는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CPI 발표 결과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CPI가 전월 대비 0.3% 오르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CPI는 파업으로 인한 운임비 상승, 조류독감으로 인한 식품품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세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달러화와 채권 금리의 안정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델타항공, JP모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경제 지표 발표가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40~2570으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순환매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K-스타트업, 美 시장 ‘노크’... 엔비디아 등 큰손들도 ‘관심’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IR’

美 실리콘밸리서 현지진출 지원 VC·CVC 등 대상 IR피칭 진행 ‘UKF 82스타트업 서밋’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현지 대형벤처캐피탈(VC)들과 ‘K-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협력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IR’ 행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됐다. 같은 날 ‘UKF 82스타트업 서밋 2025’도 열렸다.

초격차 스타트업 IR 행사는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대기업과 VC,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미국주정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를 방문해 ‘K-스타트업 통관관’을 둘러보며 참석기업 대표를 격려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격차 스타트업의 IR 피칭과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는 ‘실리콘밸리 IR 데모데이’ 행사와 13일(현지시간) 예정한 미국 AI 개발자들이 밀집돼 있는 ‘세레브럴 밸리’의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이 만나 기술 교류와 협업을 논의하는 ‘세레브럴 AI 밋업’ 행사로 꾸러졌다.

IR 행사에는 엔비디아, 구글, HP, 보잉 등 글로벌 대기업 임직원과 모태펀

드 운영사 SOSV 등 투자자, 기술 에이전트 등 100여명이 자리해 한국의 혁신적인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행사 이후 플러그앤플레이 테크 센터 등 미국 현지 액셀러레이터(AC)에 입주하거나 서비스를 지원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위트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한국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시장 진출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는 높은 기술과 혁신성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면서 “초격차 스타트업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보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투자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UKF 82스타트업 서밋

2025’는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 및 스타트업이 모인 민간 단체 UKF가 주최한 행사로, 중기부는 행사 개최 및 국내 스타트업의 IR 참여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관으로 협력했다.

‘82스타트업’은 한국의 국가전화번호인 ‘82’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중기부는 UKF를 비롯해 미국에서 한인 창업자와 벤처투자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유럽 등 전세계 주요국가에서도 한인 벤처·스타트업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투자네트워크와 연결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지난 9일엔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인 스탠포드대학교 산하 연구소인 SRI도 방문해 벤처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익스프레스 핫라인’ 본격 운영·접수

중기중앙회-기재부 합동

소상공인 현장규제·애로 신속해결 건의 처리 투명 확인, 30일내 회신

‘중소기업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

중소기업계가 기업 현장의 애로·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 총괄부처와 온라인으로 핫라인을 만들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기존에 분기당 1회씩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구축하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본격 운영하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민관합동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제안한 건의서 처리 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부처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26일 경제부총리로서 중기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늘 가동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건의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정부는 경제단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와 기재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식을 같이 하고 지난해 중기 익스프레스 회의를 대전·세종·충남(2월5일)을 시작으로 영남권(4월18일), 수도권(8월29일)에서 각각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회의가 분기별 1회씩으로 소통 기회가 한정적이고, 회의 참석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만 반영하는데다 답변을 받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 한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가동하게 된 것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기업에 단기유동성 공급

팩토링 사업·네트워크론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거래안정감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시행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매출채권팩토링 사업(팩토링 사업)은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팩토링 사업 신청대상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중소기업이 제품 등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신청일 기준 62일 이내에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다.

팩토링 지원기간은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30일에서 90일 내 신청기업이 15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팩토링 지원예산은 590억원이며 기업당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3분의1 이내(제조업 2분의1이내) 한도로 연간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동반성장 의지가 강한 대기업·중견기업·우량중소기업(발주기업)과 중진공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한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중진공이 지급받아 상환되는 구조로 운영한다.

특히, 중진공의 기존 정책자금 지원 방식과는 차별화된 공급망 연계 금융으로서, 발주서를 기반으로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L&C, 인테리어 트렌드 ‘굿 무드’ 제시

마음의 안녕, 기분좋은 상태 의미

현대L&C가 올해 인테리어 트렌드로 ‘굿 무드(GOOD MOOD)’를 제시했다.

12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건자재 기업 현대L&C에 따르면 인테리어 트렌드 세미나 ‘인트렌드(Intrend) 2025·2026’에서 마음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굿 무드’를 트렌드로 제시했다.

인트렌드 세미나는 현대L&C가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 최신 라이프스타일과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공유한다. 세미나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

며 건축 및 인테리어 업계 전문가·학계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거시 트렌드, 마감재 트렌드, 제품군별 건자재 트렌드 등 3부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자연과 공존하는 노르딕 라이프 ‘노르딕 캐빈’ ▲럭셔리 라이프 큐레이팅 ‘슈퍼 하이’ ▲몸과 마음의 기쁨 ‘조이-코노미’ 등 총 3가지 사회적 트렌드를 제시했다. 2부에서는 이들 트렌드가 마감재의 색상·소재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분석해 소개했다. 3부에서는 인테리어 스톤·필름 마감재·벽지 등 각 제품군별 트렌드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선별한 ‘올해의 머티리얼 2025’를 각각 소개했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농축수산물 할인 이벤트

공영홈쇼핑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주문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보내세요’ 행사가 열린다.

2개 구매 시 5%, 3개 혹은 4개 구매 시 10%, 5개 이상 구매 시 15%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발송 상품을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물을 통해 구매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은 주문시 각각 다른 주소를 지정해 배송할 수 있다.

31일까지 펼쳐지는 ‘2025 새해 적립이요’ 이벤트를 통해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30평형 ‘노블 공기청정기2’ 출시

기존제품 대비 35% 작아져

코웨이가 작아진 크기에 강력한 청정 성능과 스마트한 기능으로 재탄생한 30평형급 ‘노블 공기청정기2 (100㎡)’ (사진)를 출시했다.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는 지난 2021년 출시 이후 건축학적 아키텍처 디자인과 혁신적인 청정 성능으로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코웨이 대표 제품이다.

신제품은 코웨이만의 혁신적 청정 기술로 기존 제품 대비 약 35% 작아진 크기에 30평형의 청정 성능을 구현했다. 넓은 공간을 관리하는 대용량 공기청정 기임에도 불구하고 작아진 사이즈로 활



용성을 높여 다양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단계 진화한 ‘상하 4D 입체 청정 시스템’을 탑재해 더 빠르고 강력해진 청정 성능도 자랑한다.

신제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들을 위한 핏 기능까지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韓 수출 핵심 15대국 기술규제 5% ↑ 美·中 규제 강화, 베트남 2배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 수출규제가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이는 아프리카 등 개도국 통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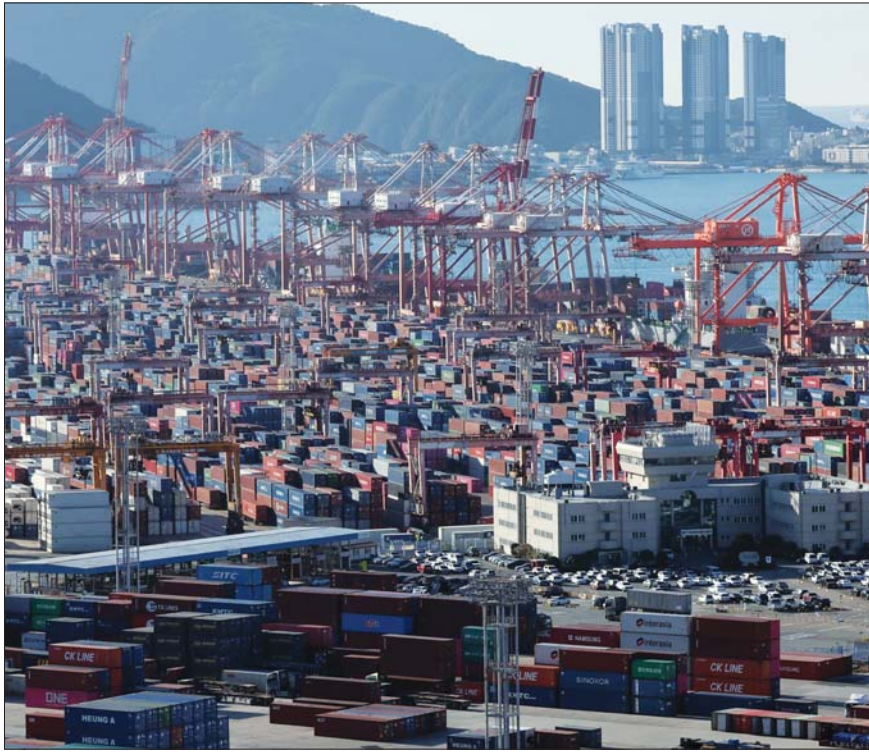
WTO 회원국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물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큰 나라 수출규제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해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기술규제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산업부 “산학연관 협력 수출 대응” WTO 기술규제, 2024년 약 6% 증가

개도국 비중 83%, 아프리카 상위권 美 에너지·교통규제 강화, 1위 유지 화학세라믹·식의약품·전자 규제 집중

하는 등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해 미국에 이어 2위였다. 베트남의 수출규제도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이 가운데 미국과 EU 등이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 1,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병원성 AI 확산… 가금농장 23건 발생

농식품부 지자체와 중수분 회의 개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2건이 추가되면서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23건으로 늘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가금류별 검출은 산란계 9건, 육용오리 9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2건, 산란종계 1건이다. 작년 10월 1건, 11월 4건, 12월 14건, 올해 1월 상순 4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23건)과 야생조류(2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장관)는 이달 10일 충남 당진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 3000마리·22번째)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만 4000마리·23번째)에서 H5N1형



지난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 여주의 한 산란계 농장 인근에서 차량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수분은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육용종계 중 사육규모가 큰 농장(5만 마리 이상 4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다슬 오리계열사에 대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해 전국 다슬 계열사 93곳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세종=김연세 기자

“폐자원에너지 정보 확인 한눈에”

환경공단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3일부터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공식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원하며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폐자원 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업무를 전면 재설계했다. 고형연료제품(SRF),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소각열 등 총 10종의 폐자원에너지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통합 플랫폼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의 정보 분산과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스템은 폐자원의 생산, 회수, 이용, 판매, 공급 등 에너지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기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이 도입돼 다양한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명절 보름 앞, 소·돼지·수산물 원산지 단속

농식품부-해수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중점 점검 전통시장·휴게소 수산물 단속 병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조기 등에 대한 이력 점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축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이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정육점 등),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식당 등)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



한 마트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축산물 가공품에 표시된 원산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매영업장 및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체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제 50조 제 1항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소·돼지고기의 수입산 여

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 정보, 수입이력, 유통 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의 경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당국이 공표한다.

해양수산부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지원 기업 모집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대상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고, 여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다. 이 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친환경 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

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필요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토에 드는 외부 검토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139개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총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세종=김대환 기자



인터파크 평점 9.4!
현실 캐릭터들의 집합소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오세요!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MERRY
SALE



인터파크 티켓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김호연 소설 <불편한 편의점>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김재경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김소영 | 분장디자인 임영희

주최·제작 극단 지우 | 기획 제이엘컴퍼니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interpark | 문의 02-332-4902

광주시, 구직활동 수당·월세특별 지원 등 청년정책 강화

구직활동 수당, 300만원으로 증액
일자리스태이션 참여대상자 확대
청년일자리공제로 장기근속 유도
월세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광주광역시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일자리 지원과 자립·정착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구직활동수당(드림수당)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일자리스태이션, 청년일자리공제, 청년13통장, 청년월세 특별 지원 등 2025년도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지역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위하여 수당을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원 증액했다. 청년의 직무적성을 반영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 경험 드림사업은 기존 주 25시간 5개월 근무에서 원하면 주 40시간 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참여 사업장에서 청년을 1년 더 채용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광주시청.

/뉴스시

아울러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일자리스태이션의 참여 대상자를 7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포함한 직장적응 교육을 통해 입사 초기 청년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장기근속하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이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자격증 취득 지원, 면접장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인공지능(AI) 모의면접 프로그램도 무료 운영한다.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저학력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참여수당과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180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복지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정부의 청년공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를 도입해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확대한

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광주시와 기업이 500만원을 지원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일하는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청년 13(일+삶)통장은 62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10개월 저축하면 광주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2.5% 중 2%를 최대 4년까지 5억5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월 20만원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시 당국은 새롭게 광주지역 문화시설과 축제에 참여하는 광주 3일 살기 프로그램인 '청년, 광주 어때'를 추진하고, 청년이 다양한 청년정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성군 민원 후견인제 운영... 편의 향상

경남 고성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민원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 후견인제는 민원인이 한 번만 방문해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복합적인 인·허가 민원에 대해 행정 전문가가 상담과 안내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성군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보유한 담당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달성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대구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달성군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평균 점수인 85.96점을 크게 웃도는 91.63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 '우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로, 점수 또한 10.31점이 향상됐다.

/달성(대구)=김준환 기자 kih9@



경북도는 지난 10일 'K-공공보듬 1호 개소식' 및 'K-공공보듬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북도, 'K-공공보듬 1호' 본격 운영

단순 돌봄 넘어 전문기업 위탁 통해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행사 지원 민간기업, 대학과 산업 육성 박차

경상북도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직원과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공간인 'K-공공보듬 1호(아이동반사무실)'를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방형식 ㈜대교에듀캡 대표이사, 정태주 국립안동대학교 총장, 안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공공보듬 1호 개소식' 및 'K-공공보듬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

포한 경북도는 민간 부문에는 공동체 돌봄을 목표로 한 'K-보듬 6000(온종일 돌봄을 통한 육아천국)'을, 공공부문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K-공공보듬' 모델을 제시하며, 저출생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K-공공보듬'은 단순한 돌봄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전문기업 위탁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직업 체험 행사, 자녀 심리검사 등도 함께 지원한다.

이와 함께 K-공공보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민간기업과도 내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돌봄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부산시, 美 시애틀서 IT 2개사와 '맞손'

MS, IonQ와 업무협약

부산시는 최근 박형준 시장이 미국 시애틀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애틀 시장과 만나 양 도시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부산 데이터센터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양자 컴퓨팅 전문기업 아이온큐(IonQ)와 '양자과학 기술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부산 데이터센터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에 새롭게 설립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IT 교육, 교육 인증서 및 장학금 수여, 멘토링 및 인

터십 등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올해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또 IonQ의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의 양자산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IonQ는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와 공동 협력과제 기획·수행 및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시는 2023~2024년 2년 연속 '양자컴퓨터 산업 활용 연구과제 공모'에 선정돼 국비 총 55억원을 확보했으며, 지역대학·기업과 협력해 IBM, D-wave 등의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박형준 시장은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을 만나 기술, 관광, 항공, 물류,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이야기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청도군, 체감 중심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농업, 출산, 복지 등 311억 투입

청도군은 지방소멸 위기와 경제 저성장 추세 속에서 군민 체감 중심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311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업, 출산, 어르신 복지, 대중교통 개선,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인 지원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농촌왕진버스 운영'에 86억 원을, 출산 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축하 및 장려금'과 '산후 조리비 지원'에 15억 원을 투입한다.

어르신 지원 사업으로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 등에 43억 원을,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료 광역환승 사업'과 '행복택시·행복버스 사업'에 43억 원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일자리사업'과 '민원주택 사업'에 97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청도사랑상품권 할인 지원'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도군은 군수 주재 대책 회의를 개최 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및 신속한 집행을 독려했다.

/청도(경북)=김준환 기자 kih9@

신안군, 215억 투입해 천일염 시설 현대화

바닥재 개선, 자동화 장비 등 지원

전남 신안군은 전국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천일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위생관리에 총 21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37억 원)과 자동채염기 및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 지원(10억 원)을 포함한다. 또한, 천일염의 장기 저장시설(2억 원)과 포장재 지원(4억 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순천시 지난해 출생아 수 '1452명'

순천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1452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천은 6년 연속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명, 2.9% 증가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부터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출산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 등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좋은 것만 남기고 다 뺐다”... ‘저속노화’ 건강식단 인기

CJ제일제당 ‘햇반 곤약밥’
‘저속노화 밥’ 화제, 1800만개 판매

오뚜기 ‘수향미 현미밥’ 리뉴얼

세븐일레븐 정희원 교수와
편의점 간편식 건강증진 프로젝트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젊은층을 중심으로 ‘저속노화(슬로우에이징/Slow-aging)’가 트렌드로 떠올랐다.

몸의 노화 시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건강한 식단 관리를 결심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가공식품 등을 줄이고 채소, 단백질 등 GI지수(혈당지수)가 낮은 식재료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다.

식품업계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저속노화 식단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의 만 19~69세 성인



햇반 현미귀리 곤약밥, 귀리흑미 곤약밥. /CJ제일제당



캘리스랩 부스에서 전문셰프가 건강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아워홈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웰에이징 인식 조사’에 따르면 72.3%가 ‘웰에이징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40~60대보다 노화 방지를 위해 시간 및 비용 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햇반 곤약밥’이 저속노화 밥으로 화제를 모으며 누적 판매량 1800만개를 넘어섰다. 회사는 2022년부터 곤약밥, 솔반, 저단백밥 등 웰니스 즉석밥의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오뚜기도 지난해 10월 현미 비율을 끌어올린 ‘수향미 현미밥’ 출시한 데 이어 11월에는 쌀 대신 귀리를 주재료로 사용한 주먹밥 시리즈를 선보이며

관련 제품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편의점 업계도 건강한 간편식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와 함께 ‘편의점 간편식 국민 건강 증진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 제공’을 상품 개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번에 ‘건강한 한끼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공동의 목표로 정희원 교수와 손잡고 저속노화 간편식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최근 선보인 저속노화 간편식은 총 5종으로 저속노화를 위한 식단 구성에 충실했다. 영양성분이 풍부한 렌틸콩, 귀리, 현미 등 대사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잡곡을 활용했고, 여기에 닭가슴살과 각종 야채를 주 재료로 사용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았다.

세븐일레븐의 저속노화 간편식 시리즈는 지난해 9월 처음 개발에 나서 콘셉트 구상부터 상품화 단계까지 4개월의 시간을 거쳐 탄생했다. 세븐일레븐은 정희원 교수의 컨설팅 아래 30회 가량의 샘플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나트륨 기준, 잡곡 함량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의 경우 일반 상품 대비 최대 50%까지 줄였다.

GS25, CU 등도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을 판매중이다. 앞서 GS25는 나트륨 평균값 대비 20% 낮춘 ‘아삭오이크림치즈 샌드위치’(347mg), 나트륨 평균값 대비 10% 낮춘 ‘스리라차마요비프’(484mg) 등을 선보였다. CU는 나트륨 표준값보다 45% 낮춘 ‘100% 피넛애플샌드위치’(344mg)와 35% 낮춘 ‘통밀치킨샌드’(347mg) 등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나트륨, 칼로리, 당 저감 등 균형 잡힌 상품 라인업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단체급식 업계에서도 저속노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급식 식자재 기업 아워홈은 구내식당에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토대로 전문 영양사가 식단 컨설팅을 해주는 ‘캘리스랩’을 운영중이다. 삼성웰스토리도 유전 인자와 취식·검진·운동 데이터 등 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맞춤형 영양 코칭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올가홀푸드

1++ 명품한우 NO.9 등
29일까지 설 선물 판매

풀무원 계열의 프리미엄 웰스&웰니스 브랜드 올가홀푸드(이하 올가)는 올가만의 지속가능성과 품격을 담아 차별화해 초프리미엄 가치가 돋보이는 ‘2025년 설날 선물세트’ 행사를 전국 올가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가는 유통업계의 고급화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품질과 희소가치를 강조한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25년 설 사전예약 선물세트는 전년 대비 11.1%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올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한 선물 이상의 품격과 지속가능성을 담아 올가만의 특별한 가치를 강조한 초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

올가의 ‘초프리미엄’ 세트는 최상위 품질의 제품으로만 구성되어 선물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설 선물세트 상품을 들고 있는 모습. /홈플러스

홈플러스

설날 선물세트 본판매
16일부터 15일간 진행

홈플러스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2025년 설날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하며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2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설날 선물세트 본 판매는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선물을 실속 있게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과일과 축산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원물의 물가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구성과 가격으로 선물세트를 마련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우선, 행사카드 결제 고객과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카드 구매 시 금액대별 상품권을 증정하며 5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1+1, 2+1, 3+1 등 구매 수량별로 1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과일 선물세트도 최저가 수준으로 준비했다. 행사카드 결제 시, ‘샤인머스켓+망고세트’는 기존 태국 골드망고 대신 페루산 애플망고로 구성해 4만9900원에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현대그린푸드, 단체급식업계 첫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본사 구내식당 그린컬러 중심 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분야 ‘우수 디자인’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본사 구내식당 인테리어가 ‘2024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실내건축 디자인 분야 우수 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 디자인 어워드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정부 공식 인증인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공신력 있는 국내 산업 디자인 시상식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단체급식업계 최초로 실내건축 디자인 분야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며 업계 내 선도적인 디자인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023년 본사 구내식당을 리뉴얼 당시 회사를 대표하는 그린 컬러를 중심으로 효율성·친환경성·포용성을 담은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설계해 적용했다. 특히 주방의 경우 전처리부터 조리·배식·세척 등 업무 프로세스별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

리해 동선을 최적화했으며, 최신 위생 장비와 가스절감 조리 장비를 설치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했다.

또한 홀 공간의 식사 테이블은 폐플라스틱과 폐유리를 업사이클링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연 채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창과 폴딩도어를 결합한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 디자인을 적용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식사시간 이외에도 구내식당을 업무나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인용 회의 테이블과

멀티탭 등을 구비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이밖에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식대와 테이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구내식당이 식사 공간을 넘어 이용 고객들의 근로의욕과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맛과 건강뿐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정호영 셰프의 만능3종 세트’ 15일 론칭

NS홈쇼핑, 전통선 손질 패키징

NS홈쇼핑이 15일 오후 5시 15분 ‘정호영 셰프의 만능3종 세트’를 론칭 방송한다고 12일 밝혔다.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 2’에 출연중인 정호영 셰프는 이번 설을 맞아 명절대표음식인 전통전의 재료를 손질해 패키징한 ‘정호영 셰프의 만능 3종 세트’를 선보인다. 다가오는 설을 맞아 한국인의 입맛에 착 붙는 전 상품을 모아 구성했다.

‘정호영 셰프의 만능 3종 세트’는 계란물만 입혀 부쳐내면 전통전을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어 차례상 음식 재료 손질의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부드러운 육질의 흥두개살 육전, 탱글한 식감의 새우전, 담백한 흰살생선 동태포가 소포장되어 있으며 필요한 양만큼 바로 꺼내 사용하기 편리하다. 흥두개살(250g) 4팩, 손질 새우(140g) 4팩, 손질 동태포(200g) 2팩으로 구성으로 가격은 5만9900원이다.

방송에는 정호영 셰프가 직접 출연해 ‘정호영 셰프 만능 3종’으로 간편하게 전을 부치고, 다양한 요리에 맛있게 응용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고객과 소통 ‘뷰티 앰버서더’ 모집

2월부터 5개월 간 활동

롯데온이 이달 15일까지 뷰티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롯데온 뷰티 앰버서더’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이번 뷰티 앰버서더 모집은 뷰티 특화 매장 ‘온앤더뷰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뷰티 앰버서더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신제품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고, 브랜드 팝업 참여 및 네트워킹 파티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롯데온 측 설명이다.

최신 뷰티 트렌드에 관심이 많고, 개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앰버서더로 선정되면 프로필 촬영 및 매월 롯데 그룹 포인트인 엘포인트 5만 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우수 앰버서더에게는 엘포인트 20만 점 추가 혜택과 함께 뷰티 브랜드와의 콜라보 촬영 기회도 제공된다. ‘롯데온 뷰티 앰버서더’는 오는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롯데온에서 ‘뷰티 앰버서더’를 검색한 뒤 나오는 페이지에 연결된 지원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안재선 기자

K제약·바이오, 상업화 경쟁으로 글로벌 시장 입지 다진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연구개발에 이어 상업화 경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제약사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와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 상업화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에피스클리 제품 생산 및 공급을,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는 미국 내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담당한다.



▲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 /셀트리온

◀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성분명: 에콜리주맙)'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클리 상업화 파트너십 체결 피즈치바, 내달 美 시장 출시 예정

동아에스티 이물도사 발매 목표 셀트리온 스텔라라 품목허가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에피스클리는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등을 적응증으로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솔리리스는 대표적인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다. 미국에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연평균 투약 금액은 한화로 약 7억60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에피스클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춰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4년 4월 국내에서도 에피스클리를 오리지널 의약품인 솔리리스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는 2월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피즈치바'도 출시할 예정이다. 피즈치바

적응증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텔라라'와 동일해 피즈치바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미국 우스테키누맙 시장에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신약개발 전문기업 동아에스티도 처음 진출하게 됐다.

동아에스티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물도사' 개발에 성공해 올해 상반기 이물도사 글로벌 발매를 목표로 한다. 동아에스티는 동아쏘시오그룹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회사인 에스티젠바이오와 협업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업화 물량 전량 생산에 돌입했다.

아울러 셀트리온도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품목허가를 최종 획득했다.

셀트리온은 스텔라라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셀트리온은 기존 램시마, 유플라이마 등 중양괴사인자 알파(TNF-α) 억제제부터 스텔라라를 비롯한 인터루킨(IL) 억제제까지 폭넓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또 셀트리온은 스텔라라를 경구형 우스테키누맙 제제(개발명: RT-111)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K특신' 제품들도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

휴젤 레티보 매출성장 본격화 대응제약 나보다 1품 1조 실현 HK이노젠 케이캡 美 FDA 도전

휴젤은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자사의 보툴리눔 독신 제제 '레티보' 매출 성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휴젤은 지난 2024년 7월 말 첫 레티보 미국 수출 물량 선적을 완료했고, 미국 파트너사 베네브와 레티보 공식 출시를 준비해 왔다. 휴젤은 향후 3년 내 미국 현지에서 점유율 약 1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로는 앞서 지난 2019년 먼저 미국 시장에 진입한 대응제약의 나보다는 1품 1조를 실현할 기업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성장 보폭을 키운다. 대응제약은 나보다 글로벌 매출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씩 증가해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을 내놓은 HK이노젠도 미국 FDA에 도전장을 낸다.

HK이노젠은 현재 미국에서 비미란 성식도염을 적응증으로 한 케이캡 임상 3상을 완료했고, 미란성식도염에 대한 임상 3상은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품목허가를 추진할 것으로 국산 신약의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제30호 국산 신약인 케이캡이 미국 FDA 문턱을 넘게 되는 경우, 제조·생산·유통은 미국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즈가 맡는다. HK이노젠은 이미 지난 2021년 미국 소화기 의약품 전문회사인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즈와 5억4000만 달러 수준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中, '온라인 게임 분류' 등 신규 표준 제정

배포·프로모션 기본요건도 발표 게임 개발 소요시간 ↓, 효율성 ↑ 내달 6일 시행... 건전문화 발전

중국이 온라인 게임 분류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에 대한 기본 요건 표준을 공식 발표하고 내달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표준은 게임사들이 게임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해당 시행으로 중국 정부의 글로벌 진출 및 자국 게임에 대한 높은 벽을 허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시청각 및 디지털 출판협회는 '온라인 게임 분류'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에 대한 기본 요건' 표준이 제정해 내달 부터 시행된다.

중국 시청각 및 디지털 출판협회는 콘텐츠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



지난 8월 출시돼 누적 2000만장 이상을 판매한 '검은신화: 오공'. /게임사이언스

및 기관으로 구성돼있다.

중국은 이번 신설되는 온라인 게임 분류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게 골자다. 게임을 개발하는데 있어 실무자와 개발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력과 부서를 재배치한다. 통상 게임을 개발하는데 오래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게임 분류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중국이 이같은 표준을 공식 발표하는데 건전한 게임개발 문화를 발전 시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입 모아 얘기한다.

그간 중국이 자국 게임사들의 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제도와 하겠다고 입장을 강하게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게임 유통 및 프로모션 기본 요건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의 관련 자격과 핵심 링크의 운영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신작 및 기존의 IP를 통한 게임들의 유통을 원활히 해 게임 시장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판호 발급 체계 하에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이 자국게임에 대한 내자 판호 1306개, 외산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110개 등 총 1416개 판호를 발급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늘어난 수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그간 게임에 대해 강한 규제와 제약을 해왔던 만큼 이번 발표가 중국이 게임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온라인 게임분류 등 표준에 맞춰 국내 게임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달라진 행보는 자국 게임 '검은신화: 오공'의 글로벌 성공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로 인해 당국 주도하에 게임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게임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공은 중국 개발사 게임 사이언스가 개발한 중국 최초의 AAA급 PC·콘솔액션 게임이다. 지난 8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장을 돌파하는 등 대흥행에 성공했다. 오공은 게임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더게임어워드(TGA)'에서 GOTY를 포함한 총 5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생활건강 고효능·최다 성분 잇몸질환 치약 선배



LG생활건강은 국내 치약 가운데 가장 많은 유효성분을 함유한 고효능 치약 제품으로 '명약원 프리미엄 잇몸·시린이 케어'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명약원 프리미엄 잇몸·시린이 케어'는 1만ppm의 글루타치온과 글루코시민을 포함한다. 또 셀룰라제·정량추출물 등 잇몸을 관리할 수 있는 성분 4종을 비롯해 제일인산칼륨 등 시린이에 적합한 성분 3종, 치태 제거 성분 2종, 1450ppm에 달하는 고(高) 불소를 유효성분으로 담았다.

그 결과, 명약원 프리미엄 잇몸·시린이 케어는 잇몸 노화와 관련된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갖췄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은 자사가 지난 2016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초로 허가를 취득한 '치약을 잇몸에 직접 바르는 용법'으로 이 치약을 사용하면 잇몸 염증 지수 개선율은 1.8배 상승하고, 잇몸 무름 지수는 41%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명약원 프리미엄 잇몸·시린이 케어를 1회 사용했을 때 이가 시린 증상이 25% 개선되는 것도 입증했다.

아모레퍼시픽, 국내 업계 최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등 중점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정부 사업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및 자원 효율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생산 및 물류 시설 사업장인 아모레 뷰티파크에서 해당 사업을 준비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 뷰티파크에 인버터 터보 블로어,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추가 구축해 연간 279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했다. 또 악취 방지 시설, 대기 방지 시설, 차

세대 폐수 슬러지 탈수기 등을 도입해 환경 오염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은 용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에 집중 투자해 취수량을 감소시키며 용수 재활용 비율을 높였다. 빅데이터 기반의 폐수처리 공정 자동화, 클라우드 기반 폐수 처리 공정 모바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도 활용한다.



아모레퍼시픽의 '아모레 뷰티파크' 전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경기도 오산에 아모레 뷰티파크를 준공한 후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온라인으로
정규 학사 학위 취득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교
- ✓ 글로벌 TOP100 6위
- ✓ 서비스품질지수 최다 1위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교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학생 수(16,802명)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최다 1위
사이버대학교 10년 연속 1위(총 18회 선정)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교 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4년 12월 01일(일) ~ 2025년 1월 16일(목)

입학
지원



건축도시건설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 /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마케팅학과 / 생산물류유통학과 / 재무·회계·세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 광고미디어학과 / 교육공학과 / 법·공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부동산학과 / 사회복지학과 / 아동학과 / 호텔외식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 / 미술치료학과 / 상담심리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예술문화디자인학과 / AI산업디자인학과 스포츠학부 AI융합자유전공학부

입학문의 | 02.2290.0082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지인할인 받은 금액,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삼육대, 김기곤 목사 가족 5000만원 기부

삼육대학교는 제12대 총장을 역임한 김기곤 목사 가족이 외국인 유학생 인재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15년간 매년 4명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오른쪽부터) 김기곤 삼육대 전 총장, 김정호 사모, 제해중 총장이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광동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광동제약은 지난 9일 광동과천타워에서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공정거래 법규에 기반한 사업 계획을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왼쪽)와 이정명 한국준법진흥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동제약



세종대-타슈켄트대, 2+2 복수학위 협정 체결

세종대학교는 지난 3일 교내 집현관 10층 소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대(Tashkent International University)와 2+2 복수학위 협정(MOA)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엄종화 세종대 총장(왼쪽 두번째), 전용욱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대 총장(왼쪽 세번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한신대, '한신복돋움 프로그램' 우수 활동 시상

한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난달 26일 '2024학년도 2학기 한신복돋움 프로그램'의 우수 활동 조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 활동 조에는 ▲1등 최우수상 '1조 활자요리사' ▲2등 우수상 '6조 밀리와 아이들' ▲3등 장려상 '8조 팔팔한 8조'가 차지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신대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준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운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윤영귀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김홍섭

부음

▲강성진(전 증권업협회장)씨 별세, 강완구(일동월드와이드 회장)·홍구(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신애(따뜻한재단 이사장)씨 부친상, 박용만(같이걷는길 이사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씨 장인상= 1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3호, 발인 14일. 02-3010-2000



김지혜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 일부 특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비급여 부분. 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약(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이다. 국민건

강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과 달리 그 부담 여부 및 액수가 어느 정도는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정해 일정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미리 고지한 진료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개별 진료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개별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가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 중 일부를 할인받고, 일반 환자에게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지인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지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의미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아니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된 후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거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확실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약관의 문언에 비취 보더라도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대해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을 할인해 준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이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 부분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진료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법무법인 바른

삼바 “송도국제도시에 협력사 유치… 교류 확대”

2025 상생협력 데이

경영진·실무자 등 50여명 참여 상생협력 통해 핵심 경쟁력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에서 '2025 상생협력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행사에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등 주요 협력사 경영진 및 실무자 총 50여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핵심 목표를 달성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력사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머크의 'M랩' 및 싸이티바의 '패스트 트랙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머크의 '생명과



지난 9일 인천 경원재 호텔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 상생협력 데이' 행사에서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외협력팀장(왼쪽부터), 황원현 아반트코리아 센터장, 석수진 써모피셔코리아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협력센터장, 송인섭 삼성바이오로직스 구매팀장, 김용석 머크코리아 대표, 최준호 싸이티바코리아 대표, 김덕상 싸도리우스코리아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학 운영본부' 설립, 2021년 써모 피셔의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 센터' 개설 등이 성사됐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싸이티바가 인천 송도에 제조 시설을 갖춘 '코리아 이노베이션 허브'를 마련했고, 싸도리우스코리아도 대규모 생산·연구시설 '송도 캠퍼스'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글로벌 기업이 잇따라 송도에 입성하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의 바이오

생태계가 지속 확대되고, 고용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원부자재 국산화 등 동반 성장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동중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은 "협력사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파리바게뜨 LA 산불 진화 현장지원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을 위해 제품을 기부한다.

파리바게뜨 아메리카본부는 미국 LA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진화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DTLA점, 산가브리엘(San Gabriel)점 등 LA와 인근 지역 30여개 점포를 통해 11~12일 이틀간 샌드위치와 페이스트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아메리카본부 관계자는 "지역 사회 기여(Nourish Community) 브랜드 방침을 실천하고자 가맹점들과 함께 소방관들에게 제품을 지원하게 됐다. LA 지역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불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매장은 없으므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매장에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심정민추모사업회, '별이 된 보라매' 출판

심 소령 순직 3주기 추모식

공군조종사 고(故) 심정민 소령을 기리는 추모식과 출판 기념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고인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경기도 수원 공군 전투비행장에서 훈련비행을 하다가 기체 고장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나 민가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끝까지 탈출하지 않고 비행기를 몰다가 순직했다.

12일 심정민추모사업회에 따라

면 심 소령의 순직 3주기 추모식이 전날 그의 모교인 대구능인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장과 이인선 의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내용의 추모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날 추모식과 함께 심 소령의 이야기를 담은 추모책 '별이 된 보라매

(사진)' 출판 기념회도 열렸다.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은 심 소령의 사관학교 동기 김상래 대위는 "고인의 결혼식 사회를 제가 맡기로 했었지만 다른 일정으로 약속을 못 지켰다"며 "이 사회를 맡게 돼 당시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토로했다.

책 '별이 된 보라매'에는 고인이 가장 아꼈던 조카와 나는 전화 대화 내용을 QR코드로 입력해 직접 들을 수 있게 했다. 고인의 어릴 적 사관학교 재학 시절, 그리고 수원 전투비행단 시절 사진 등도 수록돼 있다.

/원승일 기자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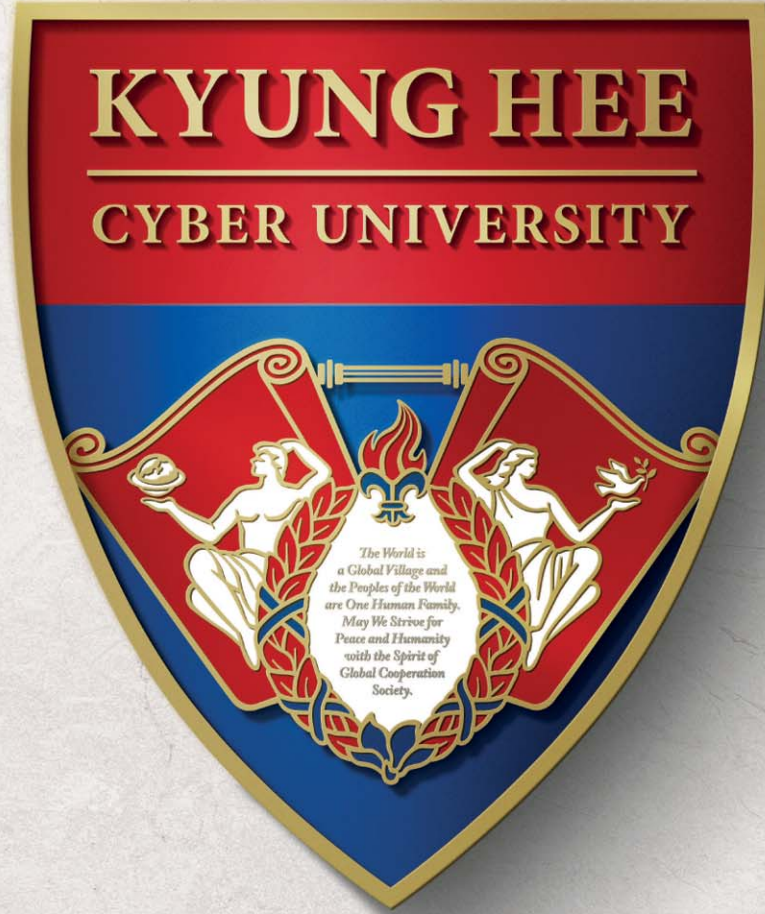
경동나비엔 '한번 더 콘텐츠' 전시회

경동나비엔이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와 함께 '한번 더 콘텐츠: 가치의 재발견' 전시회를 개최한다.

12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선 수명이 다한 콘텐츠 일러의 부품과 재재를 학생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재탄생시킨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은'에서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경이로운 변화, 희망찬 미래



교육부가 인정한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개교 이래 언제나 교육부 평가 1위(2007, 2013, 2020)	K-BPI 사이버대학 부문 9년 연속 1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4년제 정규 학사 취득을 100% 온라인으로 명문 석학 교수의 100% 온라인 수업 진행
신·편입생 장학금수혜율 98.2%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경계 없는 캠퍼스 라이프 축제부터 지역학습관, 현장실습까지	다양한 경희동문 혜택 경희대 캠퍼스 및 도서관 이용, 학점교류, 의료비 감면 등

경희사이버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 일정 1차: 2024.12.01.(일) ~ 2025.01.14.(화) 2차: 2025.01.27.(월) ~ 2025.02.14.(금)

| 모집전공 :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 계열 |

IT·디자인융합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신설 스포츠학부	세무회계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경영전공 신설 스포츠지도전공	자산관리학부
재난안전학부	상담심리학과	실용음악학과	금융전공 부동산전공
소방방재전공 안전공학전공	일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신설 전자정보공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외식조리경영학부
한방건강관리학과	한국어문화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신설 AI·빅데이터경영전공	외식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후마니타스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이민·다문화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신설 글로벌자율학부

| 지원방법 |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 선발방법 | 자기소개서(80%) + 인성검사(20%) | 입학지원센터 | go.khcu.ac.kr | 상담전화 | 02-959-000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논쟁, 누구 말이 맞을까



김승호의
시선

지난 3일 서울 영등포 KNK디지털타워에 위치한 웹케시 본사에서 새해 벽두부터 기자회견을 자청한 웹케시그룹 창업주 석창규 회장이 30여 명에 달하는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석 회장은 “저는 탐욕적인 기업인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웹케시 계열사 비즈플레이는 지난해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합·발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 올해부터 한국조폐공사가 맡게 됐다. 비즈플레이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일감을 뺏긴 셈이다.

석 회장은 “공공이 왜 민간 영역에 들어왔느냐. 본인(조폐공사) 기술도 없이 하도급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결제시스템(산업)에 무슨 발전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통합, 발행을 시

작하려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업자 인 조폐공사측이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두 달이 늦춰졌다. 이 때문에 2월까지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모바일)와 KT(카드)가 업무를 떠안게 됐다. 그러면서 소진공과 조폐공사는 통합 오픈 시기를 3월 1일로 다시 잡았다.

석창규 회장은 ▲정상 오픈을 위한 필수 고지 기간 초과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 및 방법론 부재 ▲플랫폼 필수 테스트 절대 부족 ▲운영사업자의 필수 과업 누락 등을 이유로 들어 “3월1일에 정상 오픈을 하지 못할 것이다.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오픈해서도 안된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자칫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석 회장은 그러면서 조폐공사가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자사에 요구했던 ‘플랫폼 설계도(ERD)’에 대해선 부당한 처사인 동시에 기술탈취 가능성을, 하도급을 준 것에 대해선 불법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즉각 반박했다. 조폐공사는 “3월 1일 정상 오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상 오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운영사업자(비즈플레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며 비즈플레이쪽에 공을 돌렸다. ERD에 대해선 “요청해 받기는 했지만 현재 ERD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의 오프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선 객관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업 주체인 소진공도 3월 1일 통합 앱 출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해 소진공은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불법)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놓고 기존 사업자인 민간기업 비즈플레이와 공공기관인 조폐공사, 소진공이 단단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3월1일)정상 오픈 불가시 모든 책임은 조폐공사가 져야 한다. 우리 지난해 수 차례 열린 간담회에서 정상 오픈이 불가하니 대안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불가능’, ‘가능’으로 맞서고 있는 3월1일은 곧 온다. 그 때가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bada@metroseoul.co.kr

유별난 명품사랑이 불러온 배짱 영업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유별나다. 과자나 라면이 몇 백원 오르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명품은 가격이 올라도 줄을 서서 구매하니 말이다. 명품업계가 국내에서 배짱营业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한국인의 명품 사랑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

에르메스, 샤넬 등 주요 명품 브랜드가 연초부터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에르메스는 지난 3월부터 가방, 의류, 장신구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10% 가량 인상했다. 가방은 평균 10% 인상이 적용됐으며 슈퍼리의 경우 급값 상승 영향을

반영해 더 높은 인상이 적용됐다.

샤넬은 지난 9일 일부 플래툰 제품에 대해 평균 2.5% 가량 가격을 올렸다. 미디움 사이즈는 기존 900만원에서 931만원으로 약 1.4% 인상됐고, 라지 사이즈는 983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약 3.5% 올랐다. 또 다른 브랜드 고야드도 일부 제품에 한해 가격을 6% 인상했으며,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주요 브랜드도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1년에도 수차례씩 제품 가격을 인정한 바 있다. 그 때마다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댔다.

가격을 올린다고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가공식품이나 생활 필수품이 고작 몇백원 올리는 것에는 지갑

을 닫지만, 명품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명품은 오늘이 가장 싸다’며 오픈런을 불사하고 매장으로 달려간다. 가격을 끊임 없이 올려도 사려는 소비자가 줄을 서는데 명품 브랜드가 가격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프라인 중국은 자국 내 소비를 지향하는 ‘귀차오(國潮)’ 열풍이 불면서 명품에 대한 애정이 식은 분위기다. 때문에 오히려 명품 브랜드들이 매출 감소와 과잉 재고 해결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유독 한국에서만 잦은 인상을 하고 고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럴 때일수록 명품 소비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업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스마트 컨슈머가 되길 기대해본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1월 13일 (음 12월 1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 48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전부터 죽 쑤다. 60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72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헤매다 가 소독은 없이 돌아선다. 84년생 처음이 중요하다 끝맺음도 잘 해야.



37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기다려라. 49년생 붉은색과 함께 숫자 6이 행운을 준다. 61년생 지금 당장 못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73년생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친구는 신의에서 시작. 85년생 배우자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38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50년생 직장에서 기쁜 소식. 62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살자. 74년생 간에 불났다. 쓸개에 불났다 하다 보면 갈 곳이 없다. 86년생 평온하니 한가하게 뱃놀이.



39년생 재능이 가득해도 올바른 처신이 구슬수를 예방한다. 51년생 배경을 과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63년생 늘 먹던 밥도 신물이 날 때가 있다. 75년생 써지 않으려면 물은 계속 흘러 보내야 한다. 87년생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40년생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52년생 지금으러는 임시방편 대충 할 수 있는 미봉책(彌縫策)이 필요. 64년생 오후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76년생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88년생 돈 문제가 갈수록 태산.



41년생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한다. 53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진다. 65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여하니 실망은 이르다. 77년생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89년생 조상님께 결초복은(結草報恩)의 마음이다.



42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5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6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일도 많아진다. 78년생 이직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결과를 낳는다. 90년생 걸 다르고 속 다른 것도 인생사.



43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5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성공으로만 측정된다. 67년생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다. 79년생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시간. 91년생 그동안의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44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든 참여. 5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68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마라. 80년생 이기적인 마음을 포용으로 바꾸라. 92년생 조직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45년생 외출할 때 이론치를 조심. 57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69년생 빛나서 빛을 잃는다. 81년생 불평 마라 절이 싫으면 종이 떼라. 93년생 굴벵이도 꾸르는 재주가 있으니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46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58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70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82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94년생 새로 만난 사람의 말은 그림의 떡.



47년생 상식이 많으니 주위에 사람도 많이 따른다. 59년생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71년생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형국이다. 83년생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95년생 험겨운 삶에 애정을 가져야 할 것.



김상회의四季 을사년 삼재

을사년이다. 그동안 삼재 기간을 보낸 신자진(申子辰) 세 띠는 삼재에서 벗어나며 을사년에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의 해묘미(亥卯未) 삼재가 들게 된다. 9년마다 삼 년씩 드는 삼재는 같은 삼재라도 복 삼재가 되기도 하고 악 삼재가 되기도 한다. 이는 순환되는 법칙의 체계에서의 조합이니 삼재는 삼가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다. 경계망동하고 들떠서 자만하거나 과욕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니 주눅 들지 말 것이다. 자신 또는 식구 중에 삼재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각각의 띠와 사주에 따라 드러나는 삼재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이 삼재를 맞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 하더라도 을사년에는 돼지띠가 좀 더 조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을사년의 지지인 사(巳)와 돼지띠인 해(亥)는 지지상 서로 부딪혀 깨진다는 충살(衝殺)이 되는지라 일단은 매사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은연자중(隱然自重)이 요구된다. 개인의 사주명조에 부정적 신살이 있다면 아무래도 삼재 시기에 사고가 나거나 중요한 계약이나 일에 장애가 예측되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사주명조 자체가 반안살이나 월덕 천덕 등이 있다면 그런대로 무난하게 잘 넘어가기도 한다. 또 기해생 돼지띠라면 은퇴 후 혹은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자영업으로의 전환시도 같은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신해생辛亥시나 계해생癸亥처럼 아직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의 승진에 답보가 있을 수도 있고 상사와의 반목이나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주명조와의 대조 및 분석은 필수인데 일주와 대운의 기운도 같이 살펴야 더 자세한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삼재라는 한 가지로 운을 단정하지는 말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91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1	6	9	8	4	9	7	2
9	7	2	5	6	8	6	1
2	1	8	9	1	7	6	9
8	2	6	7	9	1	9	8
8	7	7	6	1	9	8	2
9	9	8	7	6	2	1	7
7	8	1	9	7	8	2	9
7	9	9	8	2	6	1	7
6	8	2	1	9	7	9	8

2	7	1	8	9	8	9	6
9	7	7	6	1	2	8	9
6	8	2	1	9	7	9	8
8	9	7	8	6	1	7	2
8	2	9	8	7	9	6	1
7	6	2	9	7	8	1	8
9	1	7	9	2	8	6	1
1	8	6	7	9	2	8	9
7	9	8	1	6	8	9	7

“서울시, 중심지체계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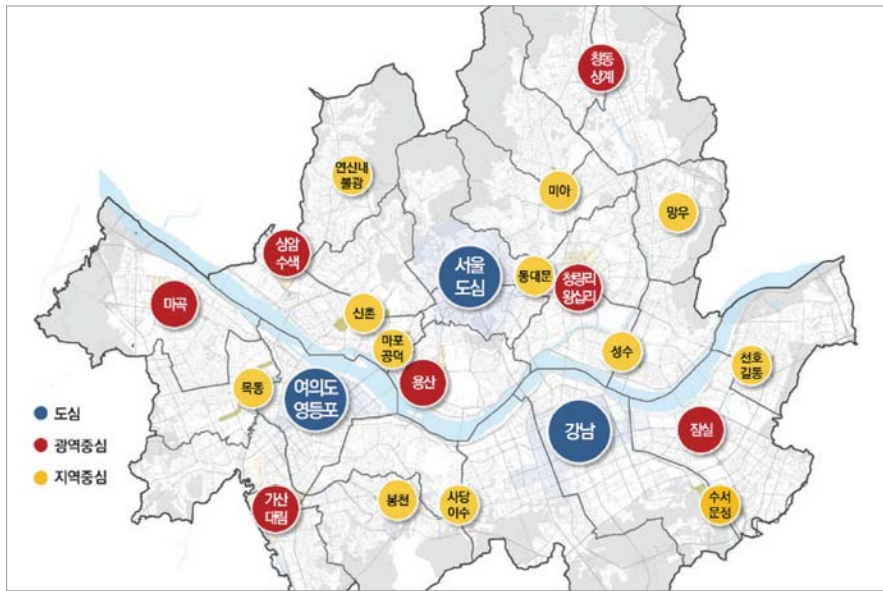
서울연구, 정책리포트 412호 발간

서울도심·강남, 타 중심지 보다 건축물 규모·업무기능 등 압도적 여의도·영등포는 그 절반 수준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중심지 체계를 도시 활력과 기능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발간된 정책리포트 412호에서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진단한 결과 기능과 규모가 편중됐으며,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래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도시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1990년 이후 법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간의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를 유지 중이다. ‘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서울연구원

심’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서울도심과 여의도·영등포, 강남으로 구성됐다. ‘광역중심’은 광역경제권의 일자리 거점이자 다기능 복합 중심이며, ‘지역중심’은 권역 생활권의 자족 기능 근거지로 고차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특정 도시에 기능이 편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도심과 강남은 다른 중심지에 비해 건축물 규모, 업무 기능, 생활인구 등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여의도·영등포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강남은 3604만

m², 서울도심은 3130만m²로, 여의도·영등포(1537만m²)의 2배가 넘었다. 주간 생활인구는 강남이 76만명, 서울도심이 66만명인 데 비해 여의도·영등포는 22만명에 그쳤다.

연구진은 “3도심 간 규모의 차이로 인해 서울도심과 강남 위주로 기능과 활동이 집중됐다”면서 “장기간 육성 노력에도 일부 중심지에서는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도심과 강남의 ‘2강(疆)’ 양상과 광역중심 중 일부 중심지에 일자리 기능이 편중된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당초 시는 중심지 체계를 통해 3개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 했으나 여의도·영등포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규모의 차이와 사업 지연으로 3도심 간 기능 분담에 차이가 발생했다.

또 보고서는 “광역중심은 가산·대림, 잠실, 마곡, 용산 위주로 일자리 기능이 집중됐다”며 “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등은 광역중심으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지만,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계획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목표 실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도시활동 거점으로 서 중심지 개념과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고용 집적지를 중심으로 지정, 신규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및 쇼핑·여가·문화 등 도시 활동 전반이 집적된 ‘활동 중심지’로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지 체계로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도심과 그 외 하위 중심지로 구분하는 위계는 유지하되, 권역별 중심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3도심에는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광역중심 이하 중심지는 기능 고도화를 전제로 특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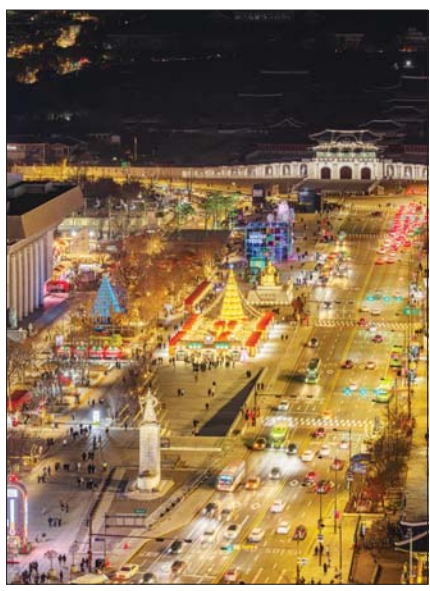
‘서울윈터페스타’ 방문객 539만명 기록

3주간 하루평균 22.4만명 방문 광화문 마켓·서울라이트DDP 호응

서울시는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열린 ‘2024 서울윈터페스타’ 행사에 539만명(누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행사장의 일평균 방문객 수는 22만4000명으로, 전년(18만8000명) 대비 3만6000명 증가했다.

시는 ‘산타 마을’ 콘셉트로 꾸며진 ‘광화문 마켓’과 미디어퍼사드 작품으로 5명의 작가가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보인 ‘서울라이트 DDP’가 큰



‘2024 서울윈터페스타’ 행사 모습.

/서울시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 소망이 담긴 ‘위시라이트(소원볼)’가 광화문광장을 수놓았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액을 기부해 연말연시 온기를 나눴다고 시는 덧붙였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24 서울윈터페스타는 ‘안전하고 희망찬 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줬다”며 “앞으로도 ‘서울윈터페스타’를 서울의 겨울을 상징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서울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겨울 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발급 대상 확대

막내자녀 15세 이하→18세 이하로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카드(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

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인 ▲커피전문점 5% 할인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이용 시 5%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5% 할인 ▲GS25,

CU, 세븐일레븐 5% 할인 ▲경기도내 시군 공영주차장 할인 ▲협력가맹점 할인 서비스 등이다. 전월실적에 따른 할인도 등 세부사항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는 고등학생까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중·고등학생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스테디카페 이용 혜택을 추가로 도입했다. 전국 2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의 온라인몰(초심몰)에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인증 후 e카드(금액권)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구매한 e카드는 초심스터디카페 경기도 내 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e카드를 사용할 초심스터디카페 가맹점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유진체 기자 yujin@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 공개

서울시교육청, 연수·홍보자료 활용

서울시교육청은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다’ 동영상 공개해 13일부터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초연계 이음교육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전이, 적응 과정의 이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유아, 교사, 부모, 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 다각도로 추진하는 교육적 지원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해 제작한 이번 동영상 자료는 9분

34초 분량으로 유·초 연계 이음교육을 운영하는 모두가 연수와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음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이음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이음교육은 누가 참여할까요 ▲이음교육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이음교육은 어떤 점이 좋을까? ▲유·초 연계 이음교육 현장으로 가볼까요 등이다.

특히, 이번 동영상 자료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활동 모습과 대상자별 인터뷰도 담겼다.

/이현진 기자 ihj@

車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서울시, 오는 31일까지 실시

서울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2일 밝혔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김현정 기자

해돋이 / 07:46 | 해짐 / 17:35

오늘의 날씨

1월 13일 (월)
음력 : 12월 14일

수도권 날씨
4 ~ 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2/3

동두천 -10/4

백령도 1/6

파주 -12/4

가평 -12/3

서울 -4/6

양평 -8/4

인천 -4/5

수원 -4/5

용인 -4/5

평택 -8/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보잉 여객기가 또...美 애틀랜타서 엔진 고장으로 회항·201명 긴급대피
▲이시바 총리, 2월 전반 트럼프와 정상회담 최종 조율중 /사진 뉴시스

▲‘트럼프의 대선결과 번복 시도 수사’美특검 수사보고서 제출 후 사임
▲“하마스에 피해입은 미국인들, 북한 상대 소송 ‘외교 경로’ 통해 시도”

▲네덜란드 헤이그 서 기후변화 활동 시위대 도로 봉쇄, 700여명 체포
▲러 “美제재, 세계 시장 불안 위험 감수한 것...석유 사업 등 지속”



“좋은 것만 남긴다”
저속노화
건강식단 인기
L1



Life

제약·바이오
상업화 경쟁으로
글로벌 공략
L2



“전공자·비전공자들의 하모니… 음악으로 위로 전해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영화 17도까지 떨어지는 한겨울. 영화 ‘하모니’ 처럼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주는 단체가 있다. 지난 2016년 창단한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다.

영화 ‘하모니’와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배경은 다르지만 음악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는 같다. 영화 하모니는 정당방위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이 합창단을 통해 상처를 치유한다는 내용이다.

소울필하모니의 경우 음악 전공자는 물론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창단한 오케스트라다. 이들은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봉사연주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의 연주문화를 이끌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김경한 지휘자는 “소울필하모니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연주를 넘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단원들과 연주하는 음악이 누군가의 일상에 위로가 되고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실제로, 30여 명으로 구성된 소울필하모니는 매주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단순히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이들



지난 10월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제7회 정기공연을 열고 연주하고 있는 모습.

/소울필하모니

은 학생들을 위한 협연 무대 등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 학교, 교회, 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봉사 연주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김 지휘자는 소울필하모니의 지휘자로 활동하는 이유로 “음악이라는 예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악보를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과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울필하모니와의 여정은 단순히 음악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진

심 어린 교감과 추억을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며 “단원들이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합주 연습을 기다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제가 소울필하모니와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김 지휘자는

전공자, 주부 등 다양한 구성원 모여 음악 열정 하나로 창단한 오케스트라 봉사연주 등 지역사회 문화 이끌어

음악, 예술 넘어 마음 연결하는 매개체 활동영역 넓혀 위로·감동 전달하고파 학생과 협연 늘리고 음악인 지원할 것

향후 목표로 소울필하모니의 활동 영역을 전국으로 넓히는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영등포를 넘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음악이 필요한 분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협연 무대를 제공하여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비전공자 취미생들에게는 무대 위에서 음악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단원 개인의 성장과 오케스트라의 다양성,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동양미래대학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이기도 한 소울필하모니 김동희 대표는 음악의 본연의 기능을 깨달으며 오케스트라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희 대표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직업이 단순한 밥벌이가 아닌,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음악인도 많은 직업 중 하나인데 본인의 재능인 음악을 통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전공자들은 본인 직업인 만큼, 사회공헌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매주 연습에 참여한다”며 이를 보고 “음악 본연의 기능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좋아함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향후 소울필하모니를 비영리 법인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40명 이상의 인원으로 확대되면 규모 있는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기부가 가능한 비영리 법인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특히 그는 학생들과 협연하는 ‘꿈나무 연주’를 확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봉사연주의 일환 중 하나로 함께 협연한 학생들이 성장한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찬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소울필하모니의 전체 인원 가운데 30% 이상은 전공자”라며 “적은 인원으로 연주하기 어려웠던 차이코프스키의 작품들도 연주로 소화해내고 있는 만큼, 학생들과의 협연연주를 늘리고 음악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을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김경한 지휘자는 물론 김승택 악장 모두 국내외의 주요 무대를 누빈 전공자들이다.

김경한 지휘자는 현재 동아대 등 국내 대학교에서 지휘자와 음악감독직을 맡고 있다. 김승택 악장은 전공인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 13살부터 독일에서 유학생생활을 한 후 독일 뮌헨시립음악원과 트로셴엔국립 음대 대학원 졸업했다. 현재는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삼광중고등학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택 악장은 “향후 소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연주 봉사연주회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재능기부 연주회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영혼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
1 김동희 대표. 2 김경한 지휘자.
3 김승택 악장.

메트로 한줄뉴스



▲벨기에 헝크, 뢰벤에 2-0 완승…오현규 2경기 연속골
▲‘김민재 풀타임’ 뮌헨, 뮌헨글라트바흐에 1-0 승…선두 굳혀 /사진 뉴시스

▲‘황희찬 75분’ 울버햄튼, FA컵 4라운드행…‘첫 선발’ 김지수는 탈락
▲MLB닷컴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반등 위해 올해 증명해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개관 20주년 공연 라인업 공개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서 ‘자연과 인간 공존’ 릴레이 전시